朝鮮日報 夕刊
本紙夕朝刊十頁
編輯兼發行人 方應謨
印刷人 崔 ○○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一丁目 株式會社朝鮮日報社

社說

軍縮會議는 어대로
—注目할米國의攻勢軍備—

一

昨年十二月十九日 倫敦海軍軍縮豫備會商 休會時 三國共同콤뮤니케의 內容으로 海軍軍縮豫備會商은 交涉을 再開식힐수잇슬만한 適當한 機會가 到來하면 招請國인 英國政府가 適當한 手段方法을 取하게되엿다。 그러나 이것은 龍頭蛇尾의 軍縮豫備會商에 出席한 各國代表가 서로 體面을 維持하기 爲하야 發表한 콤뮤니케에 不過한것이며 事實에잇서서는 그때에 이미 米國側은 再開無用說을 主張하엿던것이다。 따라서그當時에 이미 識者는 모다 軍縮豫備會商再開는 不可能視 한바이어니와 果然 休會以後 各國政府間의 互相折衝은 아모런 進展을 보지못하엿슬뿐 아니라 三月十六日 나치스政府의 再軍備宣言을 契機로 客觀的情勢는 俄然 一層一層 列國의 急激한 軍備大擴張을 衝動하게되엿다。 그리하야 去三月末 廣田外相으로부터 英國政府에 對하야 軍縮會商 再開를 促한 事實이 잇섯스나 英政府는 此에對하야『英國이 提示한 稍協試案을 日本이 承認하는것이 先決條件이다』라는旨를 表示하고 軍縮會商의再開를 婉曲히 拒絕하엿다。

二

나치스獨逸의 無軌道的外交가 歐洲政局에 威脅을 加하고잇는以上 歐洲列國의 軍擴競爭은 必然的結果로박게 볼수업다。그리고 佛國을 爲始하야 英蘇伊 列强의 軍備計畫의 繼續的發表는 世人의胸襟을 서늘하게하는배잇거니와 二流國으로 指目되는 墺匈土및 小協商諸國까지도 萬一의 境遇에 對備할려고 軍備擴充에 汲汲하게되엿스므로 現下의 歐羅巴天地는 일즉히 어느時代 어느地域에서도 그類例를 보지못한 森嚴한 軍備로 整備되여잇는터이다。그러나 五個國海軍軍縮會議는 華盛頓條約및 倫敦條約에 規定된바로 今年內로 반드시 開催하여야할것이나 現下의 國際情勢로는 軍縮會議의 成功을 期待할수업슴은勿論, 條約規定으로 開會를約束한 今年內의 軍縮會議의 開會 그것조차 아즉 作定을보지못한 形便이다。以上은 世界大戰의 結果 現狀打破派 對 現狀維持派間의 抗爭으로오는 必然的 現象으로 國境을 接近하야 大小列國이 몰려잇는 歐洲에잇서서 一國의 一動一靜이 隣邦에 衝動될것은 明若觀火의 事理니만치 今日의 歐洲現狀은 世界大戰이 遺出한 必然的 産物이라할것이다。

三

그러나 軍備의 無制限的擴張은 歐羅巴에만 잇는일이 아니다。 隣邦에 强敵을 두지안햇고 잇다면 大洋數千哩를 隔하여잇스면서 게다가 所謂『몬로主義』를 主張할뿐아니라 世界平和의 守護者로 自任하는 北米合衆國의 可驚할 武裝은 實로 尋常치안혼바가 잇다。米國은 現在 軍事費에잇서서 世界一이오 또 今年에 未曾有의 大軍費豫算案을 通過식혀 無敵艦隊 編成을 目標로 現在 軍備도 防禦에는 充分함에 不拘하고 昨年에 이미 四十四隻建艦에 着手하엿고 또 不遠한將來에 二十四隻建造에 着手하리라하니 二年以內에 六十八隻의 增加를 보게되리라다。그리고 무엇보다도 注目되는것은 從來에 主力艦第一主義로 나가던 아메리카가 作戰計畫을 一變하야 渡洋作戰을 目標로한 航空陣을 完成한 事實과 이陣容의 첫試驗으로 數日前부터 始作된 米國有史以來의 海軍大演習이 世界의 注目을 바더가며 南北太平洋上 二千海里의 長程을 突破하야 敵地攻擊을 演習하고잇다는 事實이다。

四

米國으로 말하면 日、英兩國과 함께 今年內로 海軍軍縮會議開會에 對한 義務를 分擔하고 잇슴에 不拘하고 此에 關하야는 全然 無關心할뿐만안이라 今後 海軍에關한 無條約的 狀態를 期必하고 防禦軍備의 域을넘어 侵略的 攻擊軍備에 沒頭하고잇다。米國의 軍備擴張의 眞意가 那邊에 잇는가 할것은 스텐드레作戰部長이 議會에서『戰爭에 잇서 決定的 勝利를 期하려면 敵國領土를 進擊하는것이 絶對로 必要하다』고 聲明한데 依하야 그 實情을 確實히 豫知할수잇는가 한다。

이와가티 現下 全世界는 武裝으로써 充滿되여잇고 軍備擴張의 附隨的作用으로 戰爭은 世界를 徘徊하는듯하다。暴雲의 集結이 暴風雨의 前兆라하면 現下列强의 無制限的軍備擴張도 어떠한 結果를 産出치나안흘가? 現下列國情勢로는 戰爭을 免할 나라는 업는모양이나 軍備擴充의結果는 徹底한 保爭으로 大戰爭을 誘致하는일이 흔한것만은 拒否치못할 事實이다。

伊墺匈三個國의 會議準備工作
四日午後부터水都베니스에서
會談內容은絕對秘密

【베니스四日發聯合】 다뉴브會議가 準備工作으로 召集된 伊太利、墺太利、匈牙利、中歐三國會議는 四日 午後四時 히틀러、뭇솔리니 兩巨頭會議로 由緖가 기픈 그란드·호텔 二階大廣室에서開會 되엇다 會談은 絶對非公開로 一般에게는 勿論 新聞記者도 絶對 接近시키지안코 호텔의周圍廊下에는 憲兵探偵이 嚴重警戒를 行하고잇다 참으로 森嚴한 光景이다 會議出席者는 如左하다

▲伊太利 스빗치外務次官、폼페치오駐墺公使、코론나駐匈公使、
▲墺太利 알데넥外相、퓰글·벨駐伊公使、
▲匈牙利 데·칸야外相、데·비라니駐伊公使、
其他隨員으로 外務省首腦部가 出馬하야 베니스는 지금 歐洲政局의 注視의 焦點이어되엿다

베니스會議議題
佛伊羅馬協定檢討英佛倫敦宣言
獨逸再軍備 佛、蘇援助條約檢討

【베니스四日發聯合】 利太利 墺太利 匈牙利三國 外務首腦部를 網羅하야開催한 베니스會議는말하자면 來六月의 中歐會議의死命을 制하는것이라고 그推移에 異常한關心을 拂하고잇는데 今回의 會議는 伊、墺、匈三國 特히 匈伊兩國이 中歐問題에 關하야 互相腹藏업는 意見을 交換하는데 中心을 두고잇다 會談의 順序로 今回까지 中歐强化에 直接又는 間接으로 關係國間에 締結된 國際條約乃至條件의 再檢討에 入한다음現在의 國際政治情勢와또 羅馬會談에 臨할 大體의 對策을協議하고 미리 一定限度까지의 相互諒解에 到達하려는것이다 今回의 베니스會議의 俎上에 오른 題目은 大體 如左한것이라고 생각된다

一、一月七日의 佛伊羅馬協定의 檢討。佛伊協定에는 英國으로서도 羅馬會談의 共同宣言에 對하야 그原則을支持하고 그擴充을 希望한다는 旨를表明하고잇스며 墺太利도 슈슈닉首相、 월데넥外相의 巴里訪問으로 그見解를 充分히披瀝하고잇다
一、二月三日의 倫敦、英佛共同宣言의 說明
一、獨逸의 再軍備問題에 依하야 惹起된 歐洲의 新情勢의討議
一、스트레자會議의 決議의說明
一、中歐政局에 對한 小協商諸國과 波蘭立場의 檢討
一、佛蘇相互援助條約의 檢討

獨包圍共同戰線
匈牙利는斷然反對
카外相政府態度言明

【베니스四日發聯合】 匈牙利代表 칸야外相은三時間半後에 第一日會談을마치고 如左히匈國政府態度를言明하얏다 匈國政府는明年度에 伊太利、匈、墺 三國間에締結된 三國議定書의 協議條約强化를爲하야 伊、墺、兩國과의間에相互援助條約을 締結함에 反對치안는다 그러나 小協商國과의間에 相互援助條約에는絕對反對다 即 小協商諸國과의사이에 相互援助條約을締結하면 匈牙利는 當然 隣接諸國과 國境現狀維持를 認定하는것이되야 이것은 匈牙利政府로는 容認할수업다 第二에는小協商諸國을 包含한相互援助條約은 너무도對獨包圍를 目標로한 軍備共同戰線의色彩가强하야 匈牙利는如斯한條約에 加入함은 願치안는다 墺國不干涉에는墺國과 單獨相互不干涉條約을 締結할意圖가잇다

五日第二次會談續行

【베니스四日發聯合】 伊太利、墺太利、匈牙利三國會談은 討議三時間半後 四日 午後七時半散會하엿는데 五日도 亦是 그란드

蘇聯通商機關 四日突然閉鎖
米蘇關係漸次疎隔

【電通桑港四日發】 蘇聯邦의 通商機關인 암톨商社 桑港支社는 四日 突然 閉鎖하고 支配人암바氏는 紐育에 赴하야 同所에서 莫斯科의 訓令을 기다리기로되엇다 米國側의 財界人은이 豫期하지아니한 閉鎖에 驚愕하야 右는 太平洋岸에잇는 蘇聯通商機關의 活動斷念을 意味하는것이아닌가고 疑惑의 눈으로 보고잇다 그리고 莫斯科政府가此擧에 出한것은 米國과 新通商條約을 締結하는것을 當分間絶望視하고 또 米國의 關稅障壁에 不快의念을 强하게한 結果이라고 解釋하는이도잇는데 一般으로 米蘇復交以後의 兩國國交의 消極的傾向을 表現한 一事實이라고 보고잇다

英帝即位廿五年 銀冠式六日擧行

【電通倫敦四日發】 英帝即位 二十五年의 銀冠式은 드듸어 五月六日로서 開始되어 六月二十五日까지前後八旬에 亘하야 各種의 式典 及祝祭가 잇슬터인데倫敦市는 지금 慶賀할 祝典氣分으로 充滿하야 街上의 裝飾其他 萬端의 準備를 進行하고잇다 儀式은 먼저 六日午前 十一時三十分부터 센트폴 寺院의 感謝祭로 始作하야 조지五世、마리아皇后兩陛下는 皇太子以下 各殿下와 함께 이에行幸하실 御豫定이시다 이大祝典은 實로 二十五年前의 戴冠式以來의 最大 盛儀라고 六日萬國及 屬領의 各市民은 休業하고 奉祝의 誠意를 表하기로되엇다 그리고六日 皇帝陛下께서는 바킹감宮殿에서 마이크를通하야 親히英帝國全土에 御談話를 賜하옵시고 同夜는英國全土에 亘하야빠이스카우트는 奉祝의炬火를 表하고諸官廳도 一齊히『일루미네이션』을 點하야 不夜城을現出하기로되엇다

라=인=左=岸
非武裝地帶에 獨逸、軍隊派遣
베르사이유條約에또違反?
事實이면波瀾難免

【倫敦二日發電】 潛水艦建造로各國에 大衝擊을 與한 獨逸은또다시 라인左岸의 非武裝地帶에잇는 二都市의 警察隊와 交代로 軍隊를 派遣하야 又復 베르사이유平和條約 違反行爲를敢行하엿다고하는 信憑할 報道가 一日夜 倫敦에 들어왓다

【備考】萬若 倫敦에 傳한 것이 事實이라면 베르사이유條約第三篇 第三款 第四十二、四十三條의 規定에 違反되는것으로서、第四十四條의 規定에依하야 베르사이유條約署名國에 對하야 敵對行爲를 하고또世界의 平和를 攪亂하는것으로 看做될것으로 一大變事라고 아니할수업다。勿論 最近의獨逸은 베르사이유條約侵犯을 敢行하고잇스므로 異常하게 생각할것도 업스나 聯合國側도 여기까지해서는 沈默할수는 업슬것이다。出兵의 眞僞如何는 後報로보아야 알것이나 萬若 事實이라면 歐洲는 또다시 多事를加하게되는셈이다。

來週國會召集코 第二爆彈宣言發表
聯盟決議에對한單刀直入的回答
二日獨政府當局言明

【伯林二日發聯合】 二日 獨逸政府當局의 言明한바에 依하면過般來 벨히스가덴의 山莊에서고요히 생각을 거듭하야 聯盟理事會의 決議에 對한 方策을考究하고잇던 히틀러總統은 드듸어 決議에 對하야 單刀直入的回答을 發表할 時期가 熟하엿다고 보아 來週 國會를 召集하야 第二次爆彈宣言을 發表하기로 決定하엿다고。 히틀러總統은 國會에서의 宣言中에서 理事會決議의 不當한것을 强調하는 同時에 獨逸의 再軍備問題、聯盟復歸問題、歐洲平和條約問題、베르사이유及 로카르노兩條約에 對한 獨逸의 態度、라인란드 非武裝地帶問題、植民地回復問題等에 對하야 當當히그 所信을 披瀝하야 他歐洲列强의 態度에 痛擊을 加할것으로보인다 그리고 히틀러總統은 特히 三月十六日 獨逸政府가 徵兵令을 發布한以來 今日까지의 事態의 進展에 對하야 仔細히說明할터이다 따라서 海軍再軍備問題의 眞相도 當然히 이宣言에 依하야 明白하게 될것으로 보고잇다。그리고 國防相 브롬벨그氏는 來九日 外務省의 新聞記者의 招宴에서 一場의 演說을 行할터인바 히틀러總統이 近近

平和를脅威하는 蘇聯의空軍勢力
今後數年에一萬臺突破豫想
世界第一位의空軍國

【哈爾賓發電】 莫斯科政府는 입으로는 平和를 高唱하고 잇스나 實際에 잇서서는 軍備整化에 熱病的狂奔을 繼續하야 歐羅巴뿐만아니라 極東must 細亞에잇서서도 偉大한 脅威를 隣接諸國에 與하고잇다 最近 伯林에서온 報道에 依하면 獨逸空軍의 指導者 폰·뷰로氏는 新聞記者와의 會見에서 獨逸國防省의 代表者로 蘇聯의 空軍에關하야大略如左한意見을 發表하엿는데 이에依하야 보더라도如何히 蘇聯空軍이偉力을 가지고 잇는지 推想할수잇다。

現在 蘇聯의空軍勢力은 航空聯隊七十과 特殊部隊九十으로되엇다。 蘇聯空軍이 가진飛行機는 總數四千三百臺、그中三千二百臺는 最前線에서 活躍中이오、남어지 一千百臺는 補助機이다 第二次 五個年計畫에依하면、蘇聯當局은又復五千臺의 飛行機를建造할 豫定이므로 今後 數年에 蘇聯赤軍은 九千一百臺의 飛行機를 가지게될터이다 이리하야 蘇聯은 如斯한 偉大한 航空勢力을 가지고 世界平和에 對하야 脅威를 與하게될것이다 現在 前記와 如한 偉大한 空軍勢力을 가진國家는 世界에 하나도 업다 蘇聯空軍勢力强化의 目的은 日本、印度、이라크、中央亞細亞에 對하야 攻擊을 加하기爲한것이다 이때문에 現在 蘇聯赤軍當局은 最新式飛行機 四百臺를 海參威에 六百臺를 아무르地方에 集結하고잇다

極東制空爭覇로 英佛蘭이三角戰

【東京電話聯合】 最近 某所消息報에 依하면 英國政府는『임퍼리얼·에어웨이』에 命하야 新嘉坡에서『보르네오』를經하야 香港에 達하는 航空路의 調査에 進出하고 專門家를 派하야 極東進出을 計畫하고 잇다고 한다 現在 英國航空路는 英本國으로부터 印度를 經하야 新嘉坡까지인데 和蘭은 本國으로부터 盤谷을 經하야 아룸스타트에서 新嘉坡에 出하야 바타비아를 通過하야 스라바야에 達하여잇고 佛國도 또 新嘉坡로 부터 사이곤에 達하는線을 布하고 잇다 佛政府는 今年初에 盤谷으로부터 佛領 印度支那의 河內를 經하야 香港에 至하는 新線을 計畫하야 이미 試驗飛行을終了하고잇는 現狀이므로 英國은 馬來群島를 有하고잇스면서 各國에 뒤떠러저잇는 現狀에 鑑하야 今回의 擧에 出한것으로 英國은 最初香港進出을企圖하야 佛國과 同樣으로 盤谷으로부터 香港에 至하는 線을 計畫하엿스나 佛國과의 競爭을 避하야 新嘉坡로부터 自國의 보르네오에 出하고 마닐라를經하야 香港에 至하는 空路計畫을 한것이다 그런데 이英國의 보르네오進出에 脅威를 感하는것은 當然 和蘭이므로 同國은 當然 스라바야로부터 보르네오에 至하는 線을 對抗的으로 計畫할것으로 보이어 이에 英佛蘭三國이 文字 그대로 三角이되어 極東制空의 爭霸戰을展開할것은 日本으로서도 多大한關心事라고 關係當局도 右競爭의推移를重視하고잇다

世界短史

比島農民一揆

比島獨立에 十個年間猶豫期間을附한것과 過渡期에잇서서 實權을 獲得하랴는 米國이 가지고잇는 施政方針에 對하야 不滿을抱懷한 사크다리스타스一派는 即時獨立을主張하고 二日夜來暴動을 이르키어 呂宋으로부터 比島各地에通하는 長距離電話線은 全部 斷絕되고 라크나州의산타로자에서는 農民一隊와 警官隊가 衝突되여 三名의死者를 내엿고 보라칸州의산일데폰조市에서는 暴徒가官廳을襲擊하야死傷者七名을 내엿는데 사크다리스타스派의背後에는 日本이잇다는 說도잇다

佛蘇協約成立

佛蘇相互援助條約은 라발佛外相이 自動的相互援助에 修正을 加하려하엿기때문에 最後段階에 이르러 挫折된感이 잇더니 今番에마침내 最後的으로成立을보게되여 佛代表라발外相은 蘇代表포촘킨大使와 二日午後六時 佛國外務省에서 同條約에 正式調印을 完了하게되엿는데 오래동안遷延을 거듭하여오든 右懸案이 今般急速히 實現을보게된것은 獨逸의積極的軍備擴充으로부터 받은 佛國의恐怖心이 그 主要原因의하나일것이다

獨潛水艦建造

再軍備宣言과 함께 獨逸은 再軍備에 着手하고잇는獨逸은 다시 海軍再建에 着手하야 베르사이유條約에서 禁制된 潛水艦建造計畫을 進行하고잇는데 이제 各方面의 情報를 綜合하여보면 獨逸은 今後 二個年間에 十一萬噸以上의 潛水艦을 計畫하고 잇다하며 今秋까지 十二隻의 潛水艦이 就役되리라한다 此에對하야 直接脅威를 바들것은 英國임으로 英國政府는 即時閣議를開하고 協議

英空軍計畫短縮

英國政府는 獨逸政府가 飛行機一千八百臺를 整備하고 잇는事實이 明白하게된結果 空軍擴充에 狼狽하고 잇든中 對하야 莫大한不安을 感하고 마침내 空軍五個年計畫을 短縮하야 空軍部隊의 大擴充을 期하기로되어 航空省은 急速案을 政府에 提出하야 閣議의 承認을 求하게되고 下院에 提出하야 自國의空軍力이 獨逸의 그것에 比하야 劣勢한것을 그대로 容認할수업다는 것을 闡明하고 右案에 對한 政黨의 支持를 要求하리라한다

蘇聯의海軍擴張

獨逸의 潛水艦建造計畫에 對한 歐洲列强의 態度가 注目되는 二日 英國데일리·엑스프레스·알소우通信에 依하면 蘇聯共産黨中央執行委員會 秘書 스탈린은 今後三年間에 蘇聯의海軍力을 現在의 三倍 增加하는 大海軍擴張計畫에 同意하엿다한다

日曜氣配

▲期米 五月一日現在의 殘存米高發表後 尾寬逆이 나強氣는 滅殺되고 押目買氣强하야 氣配는 堅調를 持續

▲株式 政局不安이 除去되지 안하야 一般으로 商僕來付買는 警戒하야 人氣는 大概 動搖에 傾하고잇다 氣配多少 弱하다

大新 八六 鐘新 三五八〇
東新 一五八〇 日産 八九五

▲綿絲 平堅 大阪地方快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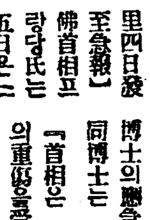
八面鋒

◇佛蘇相互援助條約 二日巴里에서 正式調印。
◇바르투氏는 馬耳塞港頭의이슬이되엇스나 獨逸包圍政策만은 꼿을피는모양。
◇꼿은피엇다고、結實이 잇슬것인지、도-버海峽을隔하야 英國의顏色이 어덜는지。
◇現狀維持를 希求하는强國에도 이러한苦憫이잇거니、現狀不滿의 獨逸이야 무러무삼。
◇六個月以內定期預金에는 利子를안부친다고 紐育組合銀行이 正式發表。
◇一千二百萬의 失業群에게、납어지처인 黃金을 뿌리라、資本의失業을救하기爲하야。

海軍軍縮問題
佛海相피에트리氏 英國首腦部와會談
英態度는消極的

【東京電話聯合】 佛國海相 피에트리氏는 知人의 結婚式에 參列하기爲하야 倫敦에 赴하엿는데 그機會를 利用하야 三十日 몬셀海相、一日에 싸이먼外相、채트필드 軍令部長과 會見하엿다 右內容에 關하야 四日 松平駐英大使로부터 外務省에 入電이 잇섯는바 右에 依하면 同日의 會見은 純然한 兵力問題에 對하야 忌憚업는 意見을交換한것뿐이라고, 傳하고 잇는모양으로 英國政府가 『來十月에 條約의 規定에 依하야 海軍軍縮會議를 招集하것다』는 希望을 述한事實은업다。 兩次의 英佛會談에서는 昨年의 豫備交涉에서 英國政府가提議한 所謂 妥協案을 非公式으로 英國이提出하야 佛國의 意向을 打診한데 對하야 피에트리海相은『條件付이면 考慮한다』라고述하고 다시華盛頓、倫敦兩條約의 根幹이된 比率主義는 應諾의餘地가업고 英國政府의希望하는바와가티 潛水艦全廢乃至徹底的 縮減에는 佛國情勢과 最近의 歐洲情勢에 照하야 反對라는 旨를 强調하고 이二大原則을 先決條件으로 하야 力說한 모양이다 그런데 右兩氏의 會見에서는 英國側이 妥協案(사이먼私案)에 對한 佛國側의 見解를 聽取한데 不過하고 本問題에는 不觸하엿다 또 次回會合의 日程、議題와 對伊海軍問題에 關해서도 아모 決定은 업섯다고 確聞된다 英國政府는 今後 非公式으로 英伊兩國의 會合할 意向을 가지고잇스므로 英國皇帝陛下 御即位二十五年記念式 終了後 英佛、英伊二國과의 豫備交涉을 行할것이라고 보인다 그리고六月開始되는 英獨海軍討議로 歐洲諸國과의 基礎工作等에着手、確信을 得하면다시 日米에도協議를進行할順序가아닌가解釋되다

自動車衝突로 佛首相重態
左腕上膊骨挫折



【電通巴里四日發至急報】 佛首相프랑당氏는 五日온느縣단스·수르·쿠르市의市會議員選擧에投票하기爲하야 四日同地에赴하는途中 욘느縣옥세르市를떠난四分之一哩의地點에서 搭乘한自動車가他自動車와衝突하야 프랑당首相은 頭部와腕部에 負傷하야 重態에陷하엿다 同乘한夫人과令孃은 異常하게도負傷을免하엿다

【電通巴里四日發】 重傷한佛首相프랑당氏는 直時옥세르市의病院에收容되어 피로데博士의應急手當을受하엿는데 同博士는 記者에게對하야『首相은 左腕上膊部에骨折의重傷을受하엿다』고말하엿다 椿事의報에驚한知事는 直時同病院에急行하야 首相을慰問하고 르브랑大統領에對하야 爲先電話로 首相의容態를報告하엿다 그리고首相의自動車와衝突한他自動車는 옥세르市에居住하는 下院議員짱·미첼·루네트르氏의所有自動車로 多幸히同氏는 自動車에搭乘치아니하엿스나運轉手는重傷하야 가티右病院에서治療를受하고잇다

日本과法王廳間 外交使節交換

【電通바티칸시티四日發】 羅馬法王廳과 日本과의사이에는 今回外交上의 使節을 交換하기로되어 日本政府는 駐伊杉村大使에게 바티칸시티駐在 外交使節兼任을 命하고 羅馬法王廳은 現在 東京駐在 代表를 使節로昇任하기로되엇다

米日爲替

【紐育四日發聯合】
賣 二十八弗五十七仙 一仙低
買 二十八弗五十四仙 一仙低

今日本紙四面

皮膚病花柳病專門 醫學博士 吳元錄 産婆 金孝允 入院隨意 診察 安東네거리·電車停留場前(電話光化門二三二〇) 自午前九時至午後八時

男子 性器强大 早漏防止器 日米佛醫에서大好評인 新案 東京 … 專門取扱 三實商會 振替京城一八八一四番

自動車運轉手講義 누구나願하는運轉手 … 東京牛込區 日本自動車教育會

소북거 고무신은거북선 京城東大門外 서울고무工社 電話光化門一一五九

京城 金分地金銀賣買所 合資會社 杉山商會 高價買 京城明治町 合資會社 杉山商會 電話本局七四番

好職業 男女適當不問自宅執業 …

各種信託 低利貸出 迅速有利 朝鮮信託株式會社 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十九番地 社長 谷多喜磨 支店所在地(群山、釜山、木浦、平壤、大邱) (營業案內贈呈)

색채당 唐彩名 京城府鍾路三丁目 德世洋行 電話光化門二八〇番 振替京城八〇四番 目錄進呈

投網 釣具 優良品 絹絲麻絲製各種 釣針釣絲釣竿 鳥捕網各種 (定價表無代進呈) 四分目 二尋 十圓 五分目 二尋 八圓 京城府黃金町四丁目 漁具製造卸商 海鮮商會 振替京城二〇五七九

申不出氏作 新作 서울구경 스켓취 오케-레코-드 (1772)

月刊雜誌 小說書籍 目錄送呈 新刊御申込れ 東京市神田區錦町一丁目五 金泰書店 月遲

시에론레코-드 두리아리랑

五月一日부터 每日三回正午十二時三時半七時半 ◎MGM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조진후이쓰모리쓰監督 間諜마다하리 라몬나바로 그레타갈보主演 妖星갈보가心血를기우린萬代不朽의名作 ◎松竹키네마特作 原作文壇의權威 牧逸馬 一代代表作 雜誌主婦の友誌上連載小說 現代劇 相思樹 二飯田蝶子 主演 栗島すみ子 齋藤達夫 岡讓二 豫告劇團 黃金座大公演 仁寺洞 電光三六一 朝鮮劇場

五月五日낫부터 料金階上十五錢 階下十錢均一 ◇大都社新作映畫 軍事活劇 倉本大尉 全五卷 監督 田中重雄 主演 東大寺一郎 ◇유니버살社特作映畫 名畫 당신을爲해서 生命도밧치리 全七卷 主演 노만케리 ◇파라마운트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爆笑劇 얼간망둥이 全八卷 監督 레오맥캐리 主演 맑쓰四兄弟 京城東大門 電話 三 桃花劇場

奬忠壇新錄속에 商工大衆의歡躍陣

―奇拔한廣告意匠行列의市街一巡―

盛況·商工聯合大運動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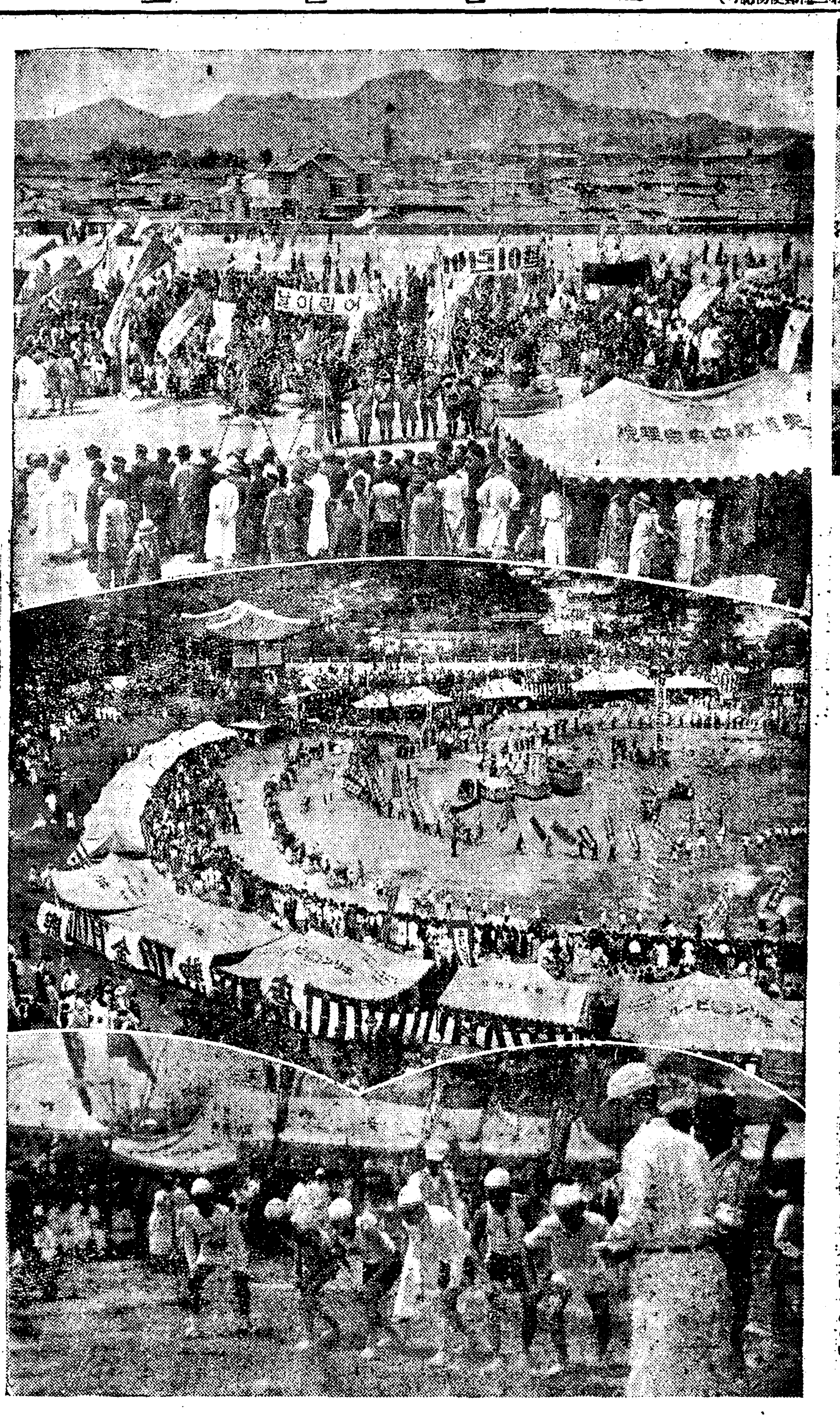
경성상공협회(京城商工協會)주최(傳技部)의원장김규면(金圭冕)씨의 제구회상공련합대운동회(商工聯合大運動會)는 신록의오월첫날일요일을복하야 드듸여막을열엇다 오전아홉시반에 례년과가티 가장행렬(假裝行列)의 일단이 광화문통(光化門通)네거리 에서 출발하야 진풍경 (珍風景)의 장사진을 끌고서서히 동대문 (東大門) 압을지나 수만관중이 기다리고잇는 운동장인 장충단(奬忠壇)에 들어갓다 오전열한시오원의 하날을울리는 폭죽(爆竹)소리와함께 이백여선수가 대렬도정연하게장내로들어가 서자 경긔부의 개회선언이잇슨다음 회장박승직(朴承稷)씨의 개회사가 이릇다음하고 전년우승자 우승긔반환식과 선수대표의 선서(宣誓)가잇섯고 본사사장 방응모 (方應謨)씨의 축사가잇섯다 이리하야 곳순로 심판(審判)위원장 서상천(徐相天)씨의 주의가잇슨다음 장엄한 입장식이끗낫다 선수와 임원재씨의 긔념사진을바인후 열한시반에 이백미(二百米) 남자도보경주로부터 경긔가 개시되여 정오까지 경기제일부를끗내고 성황에 성황을계속하야점점백열적으로진행중이어다 특히아츰의 가장행렬은 천일약방(天一藥房)의 녀왕의 행렬 (女王行列)이 일등에 입상되엿고 만화당(萬花堂)의 신랑신부(新郎新婦)、덕세양행(德世洋行)의색의장려(色衣奬勵)행렬이 이등삼등에입선되엿섯다

觀衆萬餘! 二百選手勇躍

南大門市場運動會

제이회경성남대문시장상인련합대운동회(南大門市場商人聯合大運動會)는 오월오일청명한하늘아래 시외돈암리(敦岩里)에 잇는 식산은행(殖産銀行) 운동장에서 오전아홉시 그라운을 열엇다 악대를압세우고이백여선수의용자가 회장을일주한후 회장성백선(成伯善)씨의 개회사로써 성대히 개회식을 마친후 아홉시반에 일수회(一洲會)도보경주로써 일반경긔가 시작되엿다 「스픈」경주 제동(諸洞)경주를 끗마친다음 상인들의 본격적 경긔[illegible]에들어가서 만여관중의열광리에 서재선(徐在先)[illegible]의상군이 각각일등의 영위를어덧다 열한시경에 시작된자전거경주(自轉車競走)는 본운동회의긔룸이라 이긔쁨을주어 동회장의 광긔는 자못농후하가고잇섯다 (午前十一時二十分)

사진설명=휘문광장에모힌어린이(상좌) 상공련합운동회전경(중) 동대문박남대문시장 운동회(하) 상공운동가장행렬(상우)



어린이萬歲!

薰風에祝福바든 二世民衆快示威

徽文廣場에모인三千餘兒童

步武堂堂長安大路로進軍

오월도 초닷새 청공일날 은이강산삼천리새움처럼피여나는칠백만어린이들의깃거운명절『어린이날』이다 신록에물든장안의 한울후에서는 처여롱바람이우슴처럼흥들리웁 성다운해가 아츰부터도 얼굴빛을 글거린다 이날오전열한시 정각전후하야 경성에서의긔념집회장인계동휘문[illegible] 년단체의 어린이상천여명이 모혀서 천진스러운그들의 소망과감격을 그대로나타내는『슬로-간』과 표어를 쓴수백의기빨이 칠색의수풀을 이루어고요히 미풍에떨리고 잇섯다가간혹간혹가는목에서제절로 흘러나오는 만세소리와 노래소리는 장내를흔들어 노아서 문자그대로『천사들의잔채』를이루엇다 이를 구경하려고 모혀든어른들은 운동장 한편을 둘러싼 단우에 감격에넘치는 얼굴들을통이시느러 노앗다 정각보다 삼십분늣게 열한시삼십분에 주악과함께 원유각(元裕珏)군의사회아래 식은열려서정성호(鄭成昊)군의 의기심장한 식사(式辭)가 [illegible]서 어린이날노래의 합창이잇섯다 계룡언덕이 떠나갈듯한 그우렁찬노래소리는 마치 오월의 청공에그리는『사천년긴[illegible]』의 어린순정의 항의와도가티 조기간(趙基栞)씨의축사(祝辭)가 잇슨후우량소년소녀십이명의표창도잇섯다 다음에는 창신동(昌信洞) 신우회소년부(信友會少年部)와조선소년군제 십삼호대와 재철신일호대의세단체에서 가지고 복떡웰천개를난호후 령시반경에 어린이들은 행렬을지어 악대를선두에 세우고 각각기빨을 노피들고 장사의진을 치고서 해진을시작하엿다 행렬은 위선재동(齋洞)네거리에서남으로 끼거서교동(校洞)큰길을나려와서 락원동(樂園洞)에서 [illegible] 대로난호아서 장안일대에 퍼젓다 연도에는 이를 환영하는군중이 장벽을 이루어서 실로이날의장안은 충천하는어린조선의 의기와 감격과 흥분에 무르녹앗다 표창된 각소년단체의 우량아동의일홈은아래와갓다

優良少年少女表彰者氏名

朝鮮少年軍七十虎隊 沈相麟(十一男)
梨花少年會 李相烈(十一男)
同 韓宗洙(十一男)
朝鮮兒童藝術研究協會 元裕興(十一男)
同 金順得(十一女)
往十里宣傳隊 康寅洙(十一男)
同 康元順(十一女)
天道教少年會 姜鎰(十二男)
同 李東洙(十三男)
綠雲少年會 李仁得(十四女)
信友會少年部 李楨雨(十三女)
朝鮮少年軍十三虎隊 金泰仁(十五男)

江陵共黨事件 廿一名送局

檢擧以後로近一年

작년오월초순부터 강릉군일대에서 백여명청년의 대량검거를하[illegible] 강릉 공산당재건 (江陵共産黨再建) 일명『소글립』사건 김재호(金在鎬)(?)외이십명은 지난달이십오일부터 함흥법원 대판(大坂)검사가 출장 취조하다가 동월삼십일까지 전부의취조를 마치고삼일오후 여섯시 함흥역차렬차로 십수명경관의 호위리에함흥법원검사국에 송국되엿다고한다

共産軍과士兵이 圖寧線을또破壞

守備軍憲討伐로擊退되여

同胞家屋十二戶燒失

【間島四日發聯合】동만주를횡행하고잇는 공산군과토병단등은 식량과 의복의결핍으로 빈빈히렬차습격을 계획하야 경도선(京圖線)에서는 드듸여기보와가리 이월의 참사까지 잇섯스나 일방으로도녕선에서도 삼일밤여덟시반경에 약삼백여명의 토병들 도문동상거하기 팔칠 키로의 지점에서 철도를 파괴중 이라는 급보를 접한 수비대 에서는 삼차구(三岔口)로부터 군헌이출동하야 교전한결과 이것을격퇴하엿다 이중에 공산군의 손해는다대한 모양이요 토벌대측에서도 수명의 사상자를 내이고 조선인가옥 열두호에방화하엿다고한다

醉女가裸身狂舞

밤중에길거리에서알몸으로춤추며덤빈 녀자 — 시내주교정 (舟橋町)일백이십사번지사는 천촌천대자(川村千代子)라는 스물다섯살먹은녀자는 술이잔뜩취하야 오일새벽두시쯤에시내앵정정(櫻井町)일정목산과료리점 (山科料理店) 압 길에서허리이상의 시체상부를 막우내어노코 춤추하는 남자에게 닥치는대로 희롱을 하고잇는것을보고그근처 사는 촌전상태랑(村田常太郎)이가 본정사정목경관파출소로 신고하엿스므로 그파출소순사가 데려다가 아모리진정시켜도 그냥알몸덩이를 로출해노코 소리를질러 노래를 불르므로본정경찰서로 검속하엿다 그녀자는 상년전에 시내명치정(明治町)『미나미카페』에서 녀급으로잇슨일이잇는데 우지음 불바람에 쓸쓸한독신생활의 고적을참지못하야 술을잔뜩마시고 그와가티한부로 덤빈것이라한다

無實金鑛大掃除

登錄一個年內未着手金鑛과 一年間休業鑛을斷然處分

【광산과】의 조선은 바야흐로그본무대로 들어가서 최근총독부광산과(鑛山課)에는 물밀듯이 출원이들어와서 산적되고사무에 게원이 두통을 알고잇는 이지음동과에서는드듸어대증원(大增員)을결행하는동시에 그진용을 정비하야가지고 그산적된출원처분(出願處分)의촉진을 긔키위하야 불실한자는 단연처치해버리기로 결정되엿다는데 임의처분된것에 대하야서는 광업권설정 등록(鑛業權設定登錄)한지 일년이 차도록그사업에 착수하지안는자와 착수한것이라도 일년이상 휴업한자에게는광업령(鑛業令)제이십구조일항에규정된대로 단연 광업권을취소하야써 조선안에매장되여잇는 유력광물(有力鑛物)의 개발촉진에자코저한다는것이다

貨物自動車火災

오일오전 팔시이십분 룡산한강통(漢江通) 충전운송점(塚田運送店)에서는운전수 김봉준(金鳳俊)이화물자동차를 차고에서 운전해내는중 별안간에 그 자동차 에서불이 나서큰소동을 이르켯는데 불은 곳차잇스므로 기관부 (機關部)와간만태워버렷다 손해는삼십원 가량이며원인은 배선(配線)의『스타크』로부터 불이난것이 라한다

街頭奇禍兩件

경긔도 부천군부내면한동리 (富川郡富內面[illegible]里) 사는 서문백(徐文伯)(?)은사일밤아홉시사십분에남대문통식도원(食道園)아페서 마츰그때 그곳을 통행하는 전차길을가로건느려다가 전차에바치어 머리에중상을 입엇다

남대문소학교 일년생중촌(中村)『도시꼬』(?)는사일오후 령시십분에 남대문통오정목 십오번지압큰길에서 운전수리정호(李廷鎬)이가 운전해가든 경성우편국『리야카』에바치어뇌출혈(腦出血)로 인사불성이되야세브란스(병원)에입원치료중인데 매우 위중하다한다

同僚와싸우고 飮毒한女學生

시내내자동(內資洞)오십번지시내모녀 학교생도 박명순(朴明淳)(?)은 발열한시경에 자기집에서양재물을마시고 자살을 계획한것을집안 사람들이발견하고 곳부근전일의원(全一醫院)에 입원치료 를가하엿스나 의독하다는데 원인을드르면 그는 그날낫에 동무와 싸호고 회기난다고 그만독약을먹은것이라고 한다

李承燁君出監

인천부 사정(仁川府寺町)오번지 리승엽(李承燁)(?)군은 치안유지법및출판법위반죄로 징역사년의 판결을밧고 부산(釜山)형무소에서 복역중이든바사일에 만기출옥되엇다한다

鑛山詐欺事件에 吳辯護士遂收容

永興耀德金山을中心으로 奇怪複雜한俠雜事件

【平壤】평양지방법원검사국에서는 압성(押成)검사가 담임하여 함남영흥군 요덕면(咸南永興郡耀德面)에 잇는 시가삼백만원으로 평가되는 조선최대라고부르는 요덕금광(耀德金鑛)을 중심하야 열어난 강도(强盜) 광산령위반(鑛山令違反) 문서위조행사(文書僞造行使) 불법감금(不法監禁)등 사건에 관하여 관계자 수명을 조사중이든바 요덕금광 사용인 김창수(金昌洙)는 사월이십일 배임문서위조혐의로 긔소되여 예심에 회부되엿고 평양부내 계리(鷄里)오숭은(吳崇殷)변호사의 장남 오현호(吳鉉祜)도 그달이십칠일 평양형무소에 강제수용이되재로 관계자를 예의취조중이든바 [illegible] 변호사오숭은씨마저 압성검사의 령장집행으로 평양형무소에 강제수용되여 황금광시대가 연출한 추잡괴상한 이사건은 금후더욱 주목을끌게되엿다

그런데 이사건의 내용관계를간략히조사해보면다음과가다 평남덕천(德川)도회의원서준석(徐晙錫)씨가평북정주(定州)거주의김귀홍(金貴洪)백려욱(白麗旭)량씨를 상대하여평양부내 오숭은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작년팔월에 광업권등록말소(鑛業權登錄抹消)의민사소송을 평양지방법원에 제기한것에서부터시작되엿다 당시원고 서준석씨의 소송리유는 원고서와 피고 백 김외 삼명은 함남영흥군요덕금광을 공동출자하여 발굴하기로 계약한후 일시는산금이 업다는 소문이잇서 [illegible] 계약해제를 요구하엿스나 그후이 광산에서 수백만원을 예상하는금광맥이 발견되자 또 다시 계약당시에 일만만원의출자를 한것을 방패삼아 공동경영을 요구 하여왓스나 이것은 무우나 무리한행동이라 [illegible]

[illegible] 구한다는것으로 사건은 지난 [illegible]월에 원고서씨의 승소로 결정되엿고 동시에 패소한 김 백량씨는 공소하여 목하 평양복심법원에서 계속 계정중에잇는터이나 의외에도 파생적(派生的)으로 추잡한 내용을가지고잇는 이번 형사사건을 만드려내인것이며 따라서 금후진전은 크게 주목되는터이다

그런데 이사건이 검사국의활동까지 보게된 리면에는 소송대리인오숭은씨가 소송의임자 서씨의 사용인 김창수(金昌洙)가 서씨의 실인을 가지고잇는것을 긔화로공모하고 서씨의 장남 오현호(吳鉉祜)[illegible] 계약도한다는 위조문서를 작성하야 공증(公證)까지하게한후 서씨에게 양도를 요구하는일방 오현호는 부하들을 다리고광산에 드러가 강제로 화약고(火藥庫)열쇠와 기타일체의권리를 점령하는 동시에 서씨의관계자를 축출하고 [illegible]

[illegible]

元山第一普校 學級增設期成

【元山】원산소학교의아동입학난은해마다 고조에달하야 일부에서는 제산보교설치의 의론까지잇는이때에 원산제일공립보통학교학부형회(元山第一公普學父兄會)에서는 동교의학급을 증설하기위하여 원산부와 함남도당국에 학급증설진정을 하엿스며 학부형회에서는 즉시학급증설에관한 구체적방법을 강구하기위하야 지난사월이십일 오후두시에 동학교강당에서 백여명학부형이모여 즉시 학급증설긔성회(學級增設期成會)를 조직하고 위원으로조귀주(趙貴周)씨외 이십이명을 선거하여 구체적 촉진운동을 일으키기로 되엿다는데 이날 석에서 천여원의긔금기부(基金寄附)가잇서 일반은 동부형회의교육열에 감격한다고하며 기부한제씨의방명과 금액은 아래와갓다

▲三百圓 魏禎勳 ▲百圓式 金振浩 萬鍋俊 申碩均 ▲五十圓式 金翼鉉 納基周 尹重璟 梁泰珣 李濟燁 朴根禮 金德執 金泰濬 無名氏 ▲三十圓式 朴斗赫 金致煥 ▲合計千百十圓

五月飛霜그대로 火田耕作에雪害

平南山間地方昨年冷害地에 降雪로農作物全滅

【平壤】평남산간군부인녕원 (寧遠) 맹산(孟山) 덕천(德川) 양덕(陽德)등사군은 지난해의 흉작으로귀아선상에서 헤매이고 잇는자 그수를 알수업다고 루차보도한바 어니와 그새 당국의구제와그외구제도로공사, 등 로임으로 겨우사선에서 버서나 희망의전부인춘경긔에드러 금년엔 례년에업든티위로 벌서파종을 필한곳까지잇서풍작을 예상하고잇든중 이십구부터돌연기후가변하며동아십시경에함박눈아 나리기사작하야사창(社倉)방면가틋곳은적설사촌(四寸)에달하여그지방의 농작물은 절망상태에빠젓는데 더구나 삼분의이이상을점령한화전(火田)은전멸로보혀 사창, 소백(小白)신성(新城)청룡(青龍)등 제면의 오만여화전민은 극도로 불안가운데잇서 다시금참화를 당한세음이라고한다

仁川에腦膜炎

【仁川】지난이일부내사정(寺町)오십오번지 좌좌목충길(佐佐木忠吉)방에묵고잇는 광뢰(廣瀨)라는 녀자가뇌척수막염(腦脊髓膜炎)에걸리어잇는것이 발견되자소관경찰서 위생계에서는 아연실색하야 그즉시환자를 피병원에수용하는일방 도위생과와 응원을바더방역에 로력하리라는데 더욱이인천은 경성관문으로 널리전파될념려가만흠으로 일반가정에서는 특히주의할일이라한다

東京과京城間의 無線電網調査

總督府에서設施方針

조선의무선전화(無線電話)개설에잇서 일즉부터총독부에서 연구를진행하야 대만(臺灣) 만주(滿洲)의무선전화를 경영하는 국제무선회사(國際無線電話會社)에내교섭을개시하엿던바 채산상불가능 하다는리유로 거절을당하고 총독부에서는직영으로 여름실현시키고저 방침을확정하엿다 총독부에서 만일무전시설을 새로히설치 한다하면막대한 경비가필요함으로 과도적수단으로 현재의 경성무선전신국(京城無線電信局)에다 오륙만원의경비를 드려일부시설의 개조를할의향을가지고 체신국에 명하야조사를진행중인데 조사가 끗나는대로 명년예산에 계상할모양이다 그리고 최초의통화구역은 동경(東京)대판(大阪)경성(京城)간으로할예정이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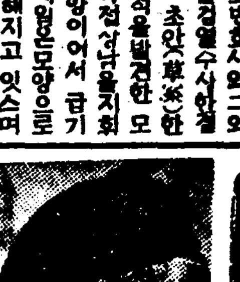
天氣豫報

曇時時晴

高氣壓은 中國北部와 日本內地의 南海上에 빼치고滿洲北部와 北海道方面은 氣壓이낫다 全朝鮮은靜穩하야時曇相半하여잇고 氣溫은 釜山의十三度와 中江鎭의四度사이에잇다 明日도 大體 호림모양이다

昨日最高 十七度五
最低 十度五
今朝最高 一七度五
正午溫度 一七度八

보양 보음 젊어지는약은 가이자가제일이요



효력 최극상최특등, 동서양에 제일유명한약의 정분만히 느어잇답니다

세상을 버리게된다. 사람은 [illegible] 백살까지는 수명이잇스나 백살가지 몸이트튼하고 원기가왕성하여야 사회에서 활동할수잇는것이며 인생의향락도 영구히엇을것이다 [illegible]

【약가】 중증엔삼원, 경증엔오원, 송료는 대금인환은 삼십전 선금은 무료 (양은환약이요)

림질 대하증엔 구로벨 제일속히듯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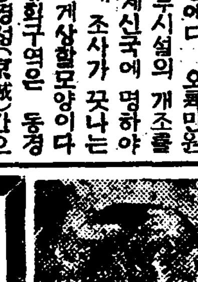
효력최극상 최특등, 전세계에서 제일유명한독일약(헤루미도-루)도 만히들엇고 세계적대신발명한 약제도 전보담 만히더느엇답니다

◇남녀 만성림질, 부인적백대하증, 남녀냉증, 요슴소톄, 월경고르지 못한데며 하혈(下血)등에는 무효하여보고 별별약을 써도 여러해동안 돈만허비하고 근치안되고 고롭하는분들이 이것저것주저할것업시 안심하고 제일먼저대신발명하신 KUROBEL(구로벨)을 쓰시오 구로벨은 효험업시 낫는다 이러한자신(自信)을 어든결과 자의안심과 신용을엇기위하야 장담하오니 안심하시고쓰시오.

一、여러해된고질 특히 재발한 성림질과 대하증은 림독성으로된방광염 고환염(산증) 섭호선염 자궁내막염 란소염 라팔관염 [illegible]
二、이약은 다른약가티 지리하게 오래안먹고 만금성간에 오래된 고질마성증이라도 원수입이상 먹을필요가업고
三、림질약치고 위장이 약상하는약이업는데 구로벨만은 조금도 [illegible]

【약가】 [illegible] 오원, 대하증, 냉병기타 부인병에오원, 지방송료 [illegible] 대금인환은 삼십전 (오원이나 십원이나 다일주분)

매독에는 푸로다-가 제일이요



효력 최극상 최특등, 류벼루호 이상의 특효가난다

매독은 선천, 후천두가지로 선조유전 또는 전염으로 발생하야 대개다 사루바루상 류벼루호주사에대하여 겨우 일시적으로[illegible] 환치가잘안되고 여러번 재발함으로 이세상에서 매독이업서지지안함을 보더라도 [illegible] 가지고는 완전한것이 증명되엿다 그래서 이불완전한점을 업새기위하야 다년고심연구한결과 주사가아니고 먹는약으로 입주입에나을수있는 매독약푸로다-(PROD)를 발명하엿다 여러가지로 치료하여도 아니되여 고통하는분은곳시험하여보시요 [illegible] ◎남녀의국부가허럿스며 가려운데, 눈이히미하고 머리가 빠지며 여기저기종기가 나고 팔다리가 쑤시고 [illegible] 또 창병 감창 코허는데등에신효합니다

【약가】 완고용칠원, 중증용오원 경증용삼원, 송료 대금인환이면 무료 대금인환은 삼십전(약은환약이요)

만일 무슨약이던지 이상한시와 특이성의체질(特異性體質)노변에안맛거나 땅고와 틀니는점이 잇거나 마음에 안맛거나 현저한 특효가업거든 약을 곳보내시오 젼부하시는대로 하여드리겟습니다.

京城西大門電車停留場前(五) (제일큰서양집)
發賣元 神崎神聖堂藥品直輸入株式會社 (그전선성당약국본점)

起耕中에 作權剝奪
全州法院에 調停申請
每日四十六七件
五個月間五百件突破

【全州】 농경긔가림박하야모자리를준비하는요지음 전주지방법원에는 매일과가티 소작쟁의가사십륙칠건식 접수하야 계원어는코들사이가업시 분망중이라는데 이제 지난정월부터 사월말일까지 접수된 소작쟁의조정신청건수를 보면 오백열두건이나 되다고한다 그중에는 지주와소작인간에 원만타협한계과 취하한것이 약삼백건이나되고 남어지이백여건은 전부법의판단을 기다리기로하야 지주대소작인간에는 번정에서 최후의판결을 기다리고잇는중이라고 한다

平北沿線地方에도 爭議去益激烈
—三月以來六十七件—

【新義州】 춘경긔가지나고농시방극한 처녀를당하야서도 평북연선일대에는 지주의 소작권박탈로인한소작쟁의가 계속하야 발생하는데 지난삼월이래 이소작쟁의가 표면화하야 평북소작 위원회에판정(判定)혹은조정(調停)의신청을한것만 륙십칠건의 다수에달한다 이것을 끼별하면 판정은 이십사건이데 그중십칠건은 판정을하얏고 남은건은아직미해결이며 권해(勸解)명령에의한 조정은사십삼건인데 그중이십오건은 해결을 하얏고십팔건은 아직미해결이다 그리하야 합게 륙십칠건중 사십이건은해결이며 전긔 해결된사실이건은 대개지주가 농지령의취지를 리해치못하고 자긔의 소유권을행사하야 소작권을박탈하려는것으로모다소작인편의승리가되고말엇다한다

地主의調停申立
그申立原因은借用米困難

전긔와가티 금년사월래 평북소작위원회에 접수된소작쟁의의 조정신청은 그전부가 거의지주의압박에시달니는 소작인이 할수업는 지경에달하야 최후로농지령의보호를입고저 소작위원회에 조정신청을 제출한것이나 그중두건만은 이와반대로 지주편에서소작인의횡포와무리를들어 소작위원회에 호소한것이잇다 그내용은

一、의주군주내면(義州郡州內面)거주지주 김신용(金信用)이가 그소작인 조성린(趙成麟)의 소작지를 반환케하여달라는 호소인데 그리유는 조성린은가족이 만부분인데 가족수에 비하야 소작면적이 비상이 만흠으로수회에 저감하는데 그소작지를반환하라하얏든바 조성린은 그동생활을 다리고와서 악구와심지어못하게까지 하려는허인족 이런 사람에게 소작을맛길수업다 함이오 또

二、룡천군용연면(龍川郡龍中面)지주 장홍식(張興植)은 소작인 김창주(金昌柱)에게 대하야 소작지를 반환하라하야 이를승락하얏슴으로 다른소작인에게 소작권을 주엇슴에 불구하고 김창주는 어떤심사인지 소작지를내여노치안코 자긔가 다시경작을하고잇는즉 이사람에게 소작권을내여놋케하야달라함이다

爭議調停難點은 農地令의不備

【新義州】 작년십월부터실시되는 농지령은그실시한지불과반년에여러가지불비의점이 계속발생한다는 보도는긔보와갓거니와 이즈음도한가지새로운 곤난이 생겻다한다 그내용은 농지령에의하면 소작인의 소작긔간은 삼개년으로 되어잇스나 이는 갱신(更新)할수가 잇서서 거의무긔한으로 연장할수가 잇게되얏는데 이에따라 소작인이 그소작권을 확보함은 조흐나、현재 소작인에 분배된경지면의 불균형(不均衡)은 이를 교정할 도리가업다 각소작인 경지면적을균등하게분배함은 목하의 대문제로 현재의 농지령으로서는 어찌할수가업게 곤난하다고 당국자는말하얏다

小作人組合總代가 小作權을私賣買
그리고도締約은自己名義로

【扶安】 농촌피폐의한원인이무지한농민을 속이고우롱하야 부당리득을취하는 무리의 소행이만흔이중권리악이권리를리용하야곤궁에 허덕이고잇는농민에 매두락 오륙원씩이나바더먹고소작권을파러먹으며매우가증한것은 소작권을 전긔와가티파러먹고서는지주와과계약 체결할때에는 슬적자긔명의로 계약을체결하고 불상한소작농민을 속여먹으라고 하는사실이 지주측의목시아레에행하고잇는일이잇다는바 그자세한내용을 조사한바에 의하면 아래와가다

부안군 동진면에잇는 상중농장(三中農場) 소작인조합총대로 잇는동진면동전리(東津面銅田里)사는우재순(禹在舜)은 상중농장의소작지를 륙십원에 동리권홍(權洪)에게 팔고서는 다시 소작계약을할때에는 자긔명의로체결하얏는데 그외에 나타난것만이 십팔건이상이며 계약체결하는당시 우사실이폭로되어 말성이생겨 일시는험악화하기까지 하엿는데 이제간관계자의말을 들으면다음과가다

某小作人談 참으로 억울합니다 소작을하라고 업는세간을팔고 비싼월리빗을어더 돈을지련주고 겨우소작을하얏는데 오늘날에와서 자긔가 소작계약을 체결하고 소작권을 팔어먹다는 동의구실을 붓치는것은 참으로기막힌일입니다 당국 법적수속이라도해서 처결지을가합니다

禹在舜氏談 (처음에는 어물어물부인하다가 긔자가 힐중을들어무르니) 참으로그랫슴니다 (한미때대답만하고 얼골만붉히고 잇섯다)

農場書記談 농장으로서도 그런일이 잇는줄은 몰랏슴니다 우리농장에서는 짐작하고 한한우리의 감독 불충분이오니 금후는절대그러한일이업게주의하겟스며 금번일은 철저히조사하야 단연처치하겟슴니다

追報=그후사실을 들은바에 의하면 농장측에서 강경한처치를안하고 소작지를 그대로우재순에게주어일반은 농장측의 애매한 태도에 분개하며 금후를주목한다고한다

咸安의惡德地主
道로서嚴重警告
警察·産業兩部長名義로

【咸安】 농지령의 실시초긔에 그 법령의불완전한 틈을타서 악덕지주와사음들이 발호함은 일반적현상이어니와 재해지함안에도 소작조정신립이 매일놀주하야 사월말일현재로 벌서사십오건이나 되여 작년도십사건의 삼배이상에 달하며 금후에도 상당한건수가 증가될것이 예상된다 조정위원들은 겨우다섯건을 해결시기고 남어지처리에 두통중이든바 최근 경남도경찰부장과 산업부장의명의로 악지주들에게 엄중경고하야 쟁의의 사례를 미으라는통첩까지 함안군수에게 래도하엿다고한다

"善德"辛地主家 調停申請三十件
前件調停도失敗한此際에
七十作人又復申請

【扶餘】 충남부여군충화면마지리(扶餘郡忠化面晩智里)에사는지주 신모(辛某)는 요지음 동면소작인에게 한리유도업시 작권을이동하야 가튼논에모자리를 두군데나 만들게하여 신구소작인간에 처처에서 충돌이 버러지고 일번경시를 일론 작인들은 일방소작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엿다함은 긔보한바어니와 지난 사월이십오일에 군청에서 소작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주와소작인들을불러 조정한바잇섯다는데 결국 지주의신모가 양보치안홈으로 결렬되여지시삼건서류를 재판소로 넘기엇다한다 그런데 그후 수일이 노치여 지주신모의 그의사형제의 각지주를 상대하야 소작인칠십여명이 또소작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엿다는바 금번전긔신지주일가를 에워싸고 이러난조정건수가 무려삼십건이라하는바 이가튼행동에 관계작인은물론 지방의물의도 분분하다는바 금번의조정신청도 결국수포에 돌아가지나안흘까하야 일반은 심히주목중이라한다

麥作賠償問題에 關係者責任廻避
七十作人은當局의態度에憤慨
咸安水組取土問題後聞

【咸安】 함안수리조합제방취토상(咸安水利組合取土場)으로쓰는경작지에대한맥작배상(麥作賠償)요구문제로 지난이일에 관계소작인칠십여명이 재이 함안수리조합서무국출장소(土木局出張所)와고본조(西本組)에살도하엿으나 함은긔보와갓거니와 각각책임회피적 언사로서 확실히 배상하여 주겟다과명언하지안음으로이에분개한소작인들은 그길로즉시 공사진행현장인부봉리(釜峰里)압들에몰려가서 『아모리국유토지일지라도 지상물인맥작만은 우리의소유이니 이에대한배상이업시 다익어가는 보리를베여냄은 무리하므로 그저볼수가업다』하야 공사진행을 일시정지식혓다가 결국보리를베힌 땅마는흙을 파기로하고 겨우충돌을면하엿다 이에간관계자의말을 듯건대다음과갓다

處理할權能업소
水組理事代理談

묵론 중대문제이므로 우리조합에서도 두통중입니다 그러나우리는국유토지를관리하는직책밧게업슴으로 맥작배상문제와 가튼중대한문제를처리할권능이업슴니다 도청과 총독부에알선하야이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려고 애만쓰고잇슴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이번요구가 절대로무리는안입니다 문제의 지장물은벌서작년가을에 심엇는데 당국용지계(用地係)에서는금년삼사월중순경에취토장으로사용하겟다고 발표하엿스니 그때는벌서만시지탄이 잇섯습니다

土木局出張所 某主任

나는 토목국 초량출장소(土木局草梁出張所)의 명령을밧어서 당국의 지정장소에다 공사를원만히 진행식힐책임이 잇슬뿐이며 맥작배상과 가튼문제는재이 함안 수리조합과 토목국초량출장소와의 처리할것입니다 그러고 되도록 피해가적은땅에먼저 공사를하라고 청부 업자에게말하엿습니다

小作人某氏談

농토를 빼앗기는것도 기막히는 사정인대 그우에서잇는 보리의 간까지 지불하여줄 성이가안보입니다 최초당국에 진정한지가 한달이넘엇는데 이때까지 서로 책임만회피하야 배상하겟다고 명언하지 안습니다 두해나비참한수재를격근 남어지에 금년보리나먹을까하고 성숙되기를 재촉하고잇든바 이외에 이것가티 빼앗기게되니 우리의 생활지게는 속수무책입니다 안자볼수가 업서서 우리보리에다 처해를보하게하엿더니 도리혀 업무방해라고하여요 우리의 피땀으로지여노흔 소유물을 침해하는행위는 정당하고 그를방지하는것이 업무방해가될까요! 죽게된 우리로서 무슨어려운일이 잇겟습잇까 운운

曙光비치인 大同郡信友學校
—財團法人의認可—

【大同】 대동군 추을미면 리천리(秋乙美面梨川里)에잇는사립신우학교는 명치사십년 이원임일에동리김명의(金明宜)로덕경(盧德卿)량씨의 주선으로 창립되야 만흔영재를배양한 대동군의 유일한교육긔관으로 고방경모(方敬模)목사와 구교장 로연학(盧然學)김명선(金明宣)량씨외제씨의 진력으로 구십여평의 교사를 신축하고학교면목을 일신하얏든바현교장김재은(金在殷)씨와김선호(金善瑚)목사와 리사제씨의 로력으로 박원의(朴元儀)씨를비루하야한영록(韓永祿)양제백등제씨의긔부로중학사만원의재단법인설정을제출하엿던바지난 사월십칠일부로 인가가되엿다는데지금 선생은 세분이고생도는이백명이라고한다

◇寫眞……信友學校校舍全景과 現校長金在殷氏

新義州第二敎會 幼稚園大擴張

【新義州】 신의주제이교회(第二敎會)에서는신의주에 자랑이될만한새교회당을 신축락성한후 그하층은 청년회의사무실 로일반사회사업에 주력을하는 일편그교회유일의사업으로 유치원 근화유치원(槿花幼稚園)을 경영하기시작하야 개원한지불과 일삭에원아가팔십명에달하는성황인데 금번 그 유치원에서는 원무를더욱 확장하고 원아삼십명을 증모한다는데 특히 금번은 입원금(入園金)을 면제하며 희망자는금월십일까지 그레배당하층사무실에 원서를 제출하라고한다

無料理髮、沐浴【南海】

남해삼동면미조(三東面彌助)분교장(分校場)에서는 아동애호의 한사업으로 리발(理髮)과 목욕(沐浴)을무료로하고 원족(遠足)강연(講演)등의개척、긔(旗)행렬도하리라하며 어린이의긔세를 크게올리랴고한다고한다

新禱로病고치다 留置場身勢

【宣川】 찬미와긔도로서폐병륵마엿과정신병을 곳친다고 환자들을 모아다가 공연히병난 길러서는다시수습할수 업게만들다가 필경에 류치장 신세를지는 로파──평북선천군내 천부동 리선심(李鮮心)(六〇)이라는 로파는 작년에의주군고관면 상고동(上古洞)에서 전긔주소로 아들을 치저온후로부터폐병환자와 륵막염 정신병등환자를모아다가는 병을고처 준다고 찬미와긔도를 하다가 병이위중하게되면 읍내미동병원으로 보내므로병원에서도 이를 고통으로역이여오든바 수일전에 그녀자가치료하는환자의 집에서 화재가일어낫슬때에 우연히이사실이 탈로하게되야 방금선천경찰서에 구금되여오일간구류처분을밧고잇는중이라한다

平壤辯護士會定總

【平壤】 평양변호사회에서는삼십일정도호텔에서 정긔총회를 개최하고회계 회무보고가 잇슨후임원개선을한결과 다음과가티 선거되엿고삼포(三浦)신임회장은 최근 동경、경성에서 개최되는 사법관회의(司法官會議)에출석할예정이라한다

◇新任員 ▲會長 三浦虎太 ▲副會長 裵炳駿 ▲常務議員 蒲本理、韓根祖、金弼應、朴泰成、朴顯茂、崔朋默、三井十三二

犯則은年復年增加
=扶餘郡의森林令違反件數=
지난一年에六百餘件

【扶餘】 삼림령이실시된이후날이 갈사록 범측자만 년부년증가되여 잇스니 이것은 무엇을의미함인가? 충남부여군청의 삼림계조사에 의하면 작년소화구년도 삼림령위반의 범죄건수는 륙백사십륙건인바 그중이백사십이건은 검사국으로송치되여 긔소와긔소유예가되엿다한다

元山府主催로 幼兒를審査

【元山】 함남위생회、원산부、원산부의사회、원산서등주최로오월이일 오전십시부터 오후삼시까지에 마세이하 유아심사회를건강상담회를 원산관(元山館)급 중정공회당(仲町公會堂)에서 개최한다는데 우량아에게는 표창장급상품과사진을 수여하리라하며 발표는 오월팔일오전 원산부청에서하리라고한다

몰핀中毒者에福音
道立大田醫院內에
中毒者收容所設置

【大田】 모히중독의 예방과 근절을 일층적극적으로 처치하기위하야 충남에서는 도립대전의원(道立大田醫院)구내에 모히중독자수용수를 설치하고 지난일일부터금년구월삼십일까지 오개월에 공하야 도내환자전부를 순차로수용하고치료한다는데 제일회는론산(論山)군내십일명을 수용하게되엿다한다

進永公立學校 學年延長實現

【進永】 김해군 진례공립 보통학교(金海郡進禮公立普通學校)는종래사학년제이어서 해미다 나오는 오륙십명의 졸업생은 륙년의과정을맛치기 위하야 흥은진영(進永) 홍은장유(長有)기타 각방면 으로 편입시험을 치러가면서 이중의고통을바더오든바 진례면장 송세운(進禮面長宋世允)씨의 발긔로 긔성회(期成會)를 조직하고 열심활동한결과 본년의작년과 가튼수해와 한해를모다겨것슴에도 불구하고 학교증축비와금후 이년간경상비로 금륙천원을모와 긔부하여가면서로자군(郡)과도(道)에교섭을 거듭한결과 사월삼십일에 경상남도로부터 인가지령을 바더스므로 면내일반은 매우깁버한다고 한다

天國에매전사랑
不遇한身勢를悲觀코
靑春男女鐵道自殺

【密陽】 지난 오월이일아츰 팔시경부산행급행렬차 경남밀양군 삼랑진면미전리(三浪津面美田里)무월수도(無月隧道)를 통과하다가 긔차에갈리어 산산히허트러진 두남녀의시체를 발견하엿다는데 그들은 현주소를 부산부영주정(釜山府瀛州町)에둔 선원(船員)게기치(戒治)(三〇)와 록정(綠町) 품천루(品川樓)의예창기(藝娼妓) 춘본군자(春本君子)로 그들은 서로사랑하는사이엇스나 멘주먹만가진 선원과 유곽에팔린그들로서는 도저히 자유로운사랑을엄우지못할것을비관하야 지난오월일일 밀양에와 령남루(嶺南樓)에도오르며구비구비흐르는남천강(南川江)변도 거닐다가 서로정사하기를결심하고 삼랑진(三浪津)역에서 머지안흔 전긔무월수도에 드러가살한것이라는데 그들의 시체는각각 포주와 형이차저갓다고 한다

椒島에天然痘

【豊川】 황해도초도(黃海道椒島)에는천연두환자가 발생하엿는데 이급보를접한 면당국(面當局)에서는 김위생주임(金衛生主任)과 풍천읍내 삼성의원장백래삼(三省醫院長白來三)씨를 삼일에 환자치료급 예방주사 시행차로현지에 급파하엿다는데 현재사망자한명에 리병자두명이라한다

淳昌地方에 旱魃騷動

【淳昌】 전북순창지방에는이른봄부터 한발이계속되어 일반농가의 우려함이 적지안튼바 춘경이반두한지금까지 한발은 이연계속하므로일반인심은 극히불안한 중이라암으로 일주일만더 계속하면춘경조차못할지경이라고한다

范浦驛竣工

【永興】 함남영흥군에잇는 드레지회사에서는 동군인흥면(仁興面)에서 사금광을 대규모로 착수하는동시에、작년도부터 동리에 가정류장(假停留場)설치공사에 착수하야 이래공사중이든바 공사가 완료되엿스므로지난사월일일부터개통식(開通式)을 거행하엿다는바 역명은 범포(范浦)역이라 칭한다고한다

侯館公普校 學級增設計畫

【侯館】 경흥군회의관보통학교(侯館普通學校)는 현재 구학급으로 매년신학긔가되면 다수한입학지원자수의 십분지이를 수용함에 불과하므로 두통꺼리로 생각하고 잇든중 지난달일 회관면회의실에서학급증설긔성회가열려 부로회의를하야 공사비오천원을 예산하고 학교를 증축키로하고 경비중사천원은 지방인사에게 긔부를모집키로하고 그허가신청을 불일내로 제출하기로 하엿다한다

咸南共黨首謀 朴元秉君出獄

【元山】 소화륙년초하에함남일대에 산포되엿던 에─데─외격문사건의범인으로 세칭함남공산당(咸南共産黨)의정체가탄로되자 피검되엿던수모(首謀)박원병(朴元秉)군은 함흥 지방법원(咸興地方法院)에서 치안유지법위반기타(治維法違反其他)의 죄명으로 오년의징역을맛고또한공판당시재판정에서 공판불경죄로 일시세상의 물의를일으켯던 조선공판사상 초유의 보안법(保安法)의 적용을바다 징역륙개월에처결되어 대전형무소(大田刑務所)에서 령오의 생활을하던바지난오월이일에 만긔이므로 대전형무소를출옥하여 삼일오후시 십오분 원산착렬차로 오륙십명 지구친척들의 출영리에 원산역에 나려즉시 원산부외당우리(堂隅里)자택으로 돌아갓는데 오래동안 독방에잇서서 건강이다소 조치못해뵈엿다고한다

本社支局主催 龜尾脚戲大會

【善山】 구사월 초파일을 긔하야 본보 선산지국과 동아일보지국 연합주최로 구사월팔일부터 삼일간구미 시장엇개울사장 에서각희대회를 열기로하고 지금량지국에서는 그준비에분망중인데 각지로부터 만흔선수의 참가를바라는동시에 따라서당일은 대성황을예긔한다고한다

豊川地方에 甘雨

【豊川】 황해도 풍천지방은 비가오지안허 농가에서매우 우려하며 하늘만처다보든차에 삼일오후 삼시경부터 나리기시작하여 농부들은 희열에 만면하엿다고한다

라디오

五日(日曜)

◇午後六時 童謠와童話 一、童謠 (가)合唱 어린이날노래 (나)獨唱 제비마중 (다)齊唱1、숫꿀집2、꼬3、너구나구를이서 (라)하─모니카合奏 1、하─모니카 2、바탈 3、귀뜨람이 二、童話 誰조혼동무 鄭成昊

◇同六時二五分 心田開發講話 童謠聯合團員、伴奏 童協作奏團

◇同七時三〇分 歌詞 至善을求하자 李鈗榮

◇同八時 漫談 一、칼멘 二、아리랑 黃村景

◇同八時三〇分 首陽歌外三曲 一、首陽歌 二、小春香歌 三、執杖歌 四、회모리 崔蓮香 金泰蓮

◇同九時 獨唱과二重唱 一、獨唱(앤더손) 完全한祈禱 스텐손作曲 二、獨唱(李) 내게오라 게넨作曲 三、獨唱(앤더손) 아름다운樂園 리듬作曲 四、獨唱(李) 主는나의빗 앨릿슨作曲 五、二重唱(李 앤더손) 방정하는자 사!잔는作曲 六、獨唱(앤더손) 지친눈 부래겟슨作曲 七、獨唱(李) 내主를사랑함 헤더 李有善 바리톤 WJ 앤더슨 피아노伴奏 J L 부─쓰

六日(月曜)

◇午後零時五分 映畵이야기 電話와科學、朴昌善、音樂伴奏

◇同二時 家庭講座 兒童敎育과娛樂(一) 宋今璇

◇同六時 童話 李定鎬

◇同六時二五分 [illegible] 經濟解說 朝鮮日報經濟部、申泰翊

◇同七時三〇分 講演 乳幼兒營養上의危機와그對策 城大病院小兒科 李[illegible]

◇同八時 山念佛外三曲 一、山念佛 二、긴아리랑 三、긴난봉가 四、朴淵瀑布 金玉葉 李眞鳳

◇同八時二〇分 (東)파이프·오르간獨奏─上野東京音樂學校로부터中繼─ 一、트리오·아리아…빠하作曲 二、英雄曲…프랑크作曲 三、칸타빌래…비도르作曲 四、大토카타…同上 木岡英三郞

◇同八時四〇分 獨唱 一、女子의사랑과一生中에서 슈─망作曲 (가) 그이를뵈온뒤로 (나) 미더지지안허요 (다) 내손의반지여 (라) 가삼에안고서 二、歌劇 루치아中에서 도니제티作曲 狂亂의노래 鄭勳謨 피아노伴奏 朴慶浩

◇同九時一〇分 時調와大笒散調 一、時調 (가) 平時調 (나) 역금 (다) 지름 二、大笒散調 진양조 高永泰 大笒 朴鍾基 細笛 丁元燮

五月七日(火曜)

◇午後○時五分 俗曲 一、念佛과打鈴 二、길군악 三、靑春歌 四、방아타령 五、梁山道 六、漢江水打鈴 笑琴 池龍九 洋琴 崔壽成 細笛 高載德

◇同一時 家庭講座 兒童敎育과娛樂(二) 宋今璇

◇同六時 童謠 綠羊會 伴奏 洪蘭坡

◇同六時二五分 라듸오學校 大宇宙와小宇宙(一) 京城高工助敎授 崔允植

◇同七時三〇分 農村講座 播種設備篇(二) 京畿農事 金建琇

◇同八時 管絃四重奏 一、로─만스 모─차르트作曲 二、아니트란舞曲 그리─그作曲 三、칸쏘네타 멘델스존作曲 四、미누엣트 보케리니作曲 延專四重奏團

◇同八時三〇分 報念外四曲 一、報念 二、새타령 三、六字백이 四、興打鈴 五、개고리打鈴 金綢玉 朴山月

◇同九時 歌曲 一、羽調初擧 二、羽樂 三、羽界樂 四、界樂 五、編 金春姬 李紅桃 洋琴 李相淳 大笒 永根 金杖鼓 金一宇

曆

五月六日(月) 舊四月四日 壬午·木·心·除

▲立夏四月節祭祀·安葬에宜함

▲立夏 六日(舊四月初四日)

▲小滿 二十二日(舊四月二十日)

유모

다수구하오니희망하시는분은지급히오시요

京城府鐘路五丁目九 電光六七九番

그女子의一生 【96】
春園 作 / 夕影 畵

손은 어안이 벙벙한 금봉을 귀여운듯、탐나는듯한 눈으로한참이나 물끄럼히 바라보고 잇더니、문득 엄숙한 낫빛을 지으며

『금봉이 내가 이번에는 큰절심을 하고 왓단말야。금봉의허락을 밧든지、그러치못하면、내가 동경서 죽어버리고 말든지、내가 집ㅅ속에 죽는데 쓰는제구는다 가지고 왓거든。머 약이 업겟나──아편도 잇고 쥐잡는 약도 잇고、약젯물도 잇고、또 칼도 잇고。조선ㅅ사람이니깨 육혈포만 업지 칼도가지고 왓단말야。금봉이가 허락아니 하면 죽을 작정으로』

금봉은 이 말을 들을 때에 손선생의머리와 얼굴ㅅ가으로시펄한 칼과 약봉지와 목매는바오랏지가 오락가락하는 것이보이고 바로 겻테 노힌 침대우에 목에서 선지피를 흘리고눈을 흡뜨고 자빠잔 손선생의모양이 보엿다。그리고 몸에 소름이 끼침을 깨달앗다。

손명규는 안경우으로 눈을치떠서 깜작거리지도 아니 하고 마치 금봉의 혼이라도 달아날가보아 지키라는드시 금봉을 노려보고 잇더니 말을 이어、

『내가 학교에서 쫏겨난것도금봉이 때문이어든。금봉이 일생을 편안하게 해주라고──지금 세상에는 돈이 제일이니께 돈을 만들랴고 학교에서는 쫏겨나고 세상과는 담을 쌓앗단말야。금봉이 하나만 잇고보면、그리고 돈만 잇고보면 그까짓놈의 세상 다 망해버리기로엇대? 안 그래?』

금봉은 제 몸이 더욱더욱 젊은 철사로 얽힘을 깨닷는다。딸다리ㅅ근육이 모도 마비되어 놈을 꼼작할수도 업는것가탓다

손명규는 말을 이어、

『현재는 한 여섯칸 집 장만을 해 놋코 집도 인사동에 한사십간자리、예전 민중전공 살던 집을 흥정해노핫단말야。집이조칭 고주ㅅ대문에 유간 대청에 안ㅅ방이 사간이오、머리ㅅ방、세간ㅅ방이 달리고건넌방이 이간에 머릿방 딸리고──그 동안 세집으로 내 노아서 종 퇴락햇지마는 목수들에서 말장고쳐지。모두 닥고유리문한 들이고 화초당도 새로 하고 오는봄에도 꼿나무나심그고。이집에서말야、그 대궐가튼 집 육간대청에 금봉이가남치마를 끄는양을 보면 얼마나 조켓서。그리고 금봉이 마음에 드는대로 무어이나 다사노흘걸 머。자동차까지도 살레야 마차도 조코。양복장도 사고。이번ㅅ길에 유성긔도 조흔것을하나 사랴고 피아노하고。』

하면서 조끼단추를 글르더니속주머니에서 커다란 가죽지갑을 내어서 백원자리、십원자리 새지전을、한치 두께나 될듯한것을 꺼내어 금봉의 압헤던지며

『이걸로 우리 긴자에 나가서 사고십흔물건 사요』

하고는 다시 그 돈을 돈ㅅ지갑에서 너어서、

『자 금봉이가 가지고 잇스라구』

하고 바드라고 한다。

금봉은 더욱 요술장이 굴에 들어온듯함을 느끼지마는 민중선생 말 마따나 그 넓은 육간대청에 제가 남치마를 질질 끄는것이 보이는 제 재산이라든지、또 백원자리 십원자리가 턱시글턱시글하는 커다란 지갑이라든지 모도 제것이되것갓타야서 일종 한축의 감격을 깨닷앗다。

『자 어서 바드라고』

하고、손선생이 듣고、흔드는지갑을 손으로 밀면서、

『어서 집어너으세요』

하고 금봉은 비로소 입을 열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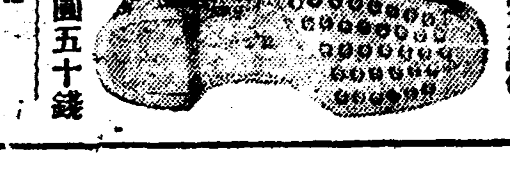
絕對全責任付不合返金換品自由

大產=大販=市價의半額

◎註文殺到에入하야 ◎品質耐久絕對保險 ◎送料는賣主負擔

定價一圓의萬年筆五本進呈

堅牢無比 靑年鍛鍊總革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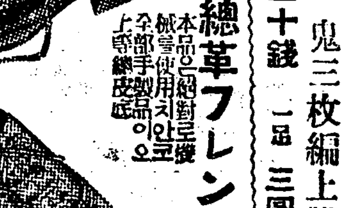
耐久二個年以上 一足 三圓五十錢

鬼三枚底=總革學生靴

鬼三枚短靴 一足 三圓五十錢

鬼三枚編上靴 一足 三圓九十錢

流行尖端 總革フレンチ型



フレンチ型編上靴 四圓二十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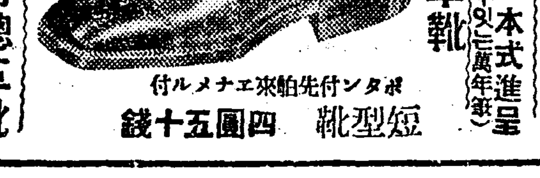
フレンチ型短靴 三圓七十錢

革靴 大爆發的 大景品付

革靴一足에定價一圓의萬年筆一本式進呈 (最新インキ吸入式、一年以上使用할수잇는萬年筆)

高級紳士禮服用總革靴

深型靴 五圓五十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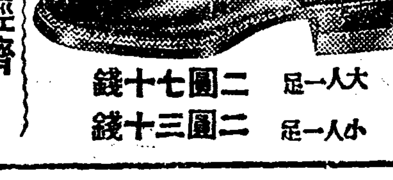


短型靴 四圓五十錢

中學生專用指定革靴

一足 三圓五十錢

女學用總革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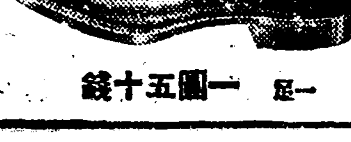


大人一足 二圓七十錢 小人一足 二圓三十錢

晴雨經濟靴

一足 金二圓

晴雨經濟女學生靴



一足 一圓五十錢

革靴一足에萬年筆一本式進呈

名古屋市東區千種町 (古井坂電停前)

合資會社 金城商會販賣部

電話東五二一四 (振替名古屋一七六)

特輯 映畵

本舞臺로 드러가라는 朝鮮映畵의 企業化?
今年엔朝鮮映畵가多量生産될듯
猛醒한映畵人들의東奔西走

조선영화계는 바야흐로 긔업적령래를 가지라고하는모양인데 재래의 소규모의 영화제작은결코 흥행상으로나 제작상으로나 큰효과를 보지못하고 결국 개인의 몰림기타의 희생에지나지 안엇슴으로 이제는 이것을 긔업화하야 영원한 장래의 영화발전을꾀하라는 공긔가 농후하야간다 첫재로 박긔채(朴基采)씨와 모씨와 어떠한 큰배경을 가지고자하는 의도아래에 활략하고잇서 녀름안으로 어떠한발표가 잇슬뜻한것과 김용규(金龍圭)씨와 고인문(高仁文)씨등이 영화제작회사를 조직코자 동분서주한다는말과 그것이 얼마간 구체화되된다는 희소식이 들려오며 리명우(李明雨)씨와 방한준(方漢駿) 리경선(李慶善)씨 등과 제휴하야가지고 평양제일관주(平壤第一舘主)와 중앙영화사사장의 후원으로 재래와다른 새계획을 가지고불원간제작에 착수한다는 풍설이잇다

또 『아리랑』으로부터 조선영화계에 공헌이크다고할수잇는라운규(羅雲圭)씨가 그동안 방랑의나그네가되며 반도의 일녹을 도라다니다가 윤봉춘(尹逢春)씨와 제휴하야가지고 다시금 영화계에 활보를해보고자 무화과(無花果)라는 영화한편을 내여노케됨으로 아프로계속제작하리라한다

그리고 안종화(安鍾和)씨는바연(朴淵)씨와 불원간다시금 영화제작을 하리라하며 오케ㅣ레코ㅣ드상회에서싸운드판영화제작을 계획하라한다는등 실로 조선영화계는 이제부터 본무대로 들어가는셈이다

그리고 조선에 조선사람으로서 일류「캐메라맨」중에 하나인 리명우(李明雨)씨는 경성촬영소에서 감독으로 그여긔를보혀상당한 그천분을보혓는데 아프로 씨는 역시「캐메라」로도 대성할 이인줄안다

영화에는 감독이 제일중요한 역할을한다함은 두말할것도업거니와 조선서도 아프로 조흔원작, 조흔각색, 조흔촬영, 조흔분장등이 한테 어우러진다면 외국에내노아도 조금도붓그럽지안은 조흔영화를맨들수잇슨 그러한방면이만히보힌다

이것은직접 당사자가보는때는 다른관찰로 대할지모르나 우리들팬들의생각에는그럿타할수잇다

◇

어쨋든 영화제작소가 몃이라도 선다면 이방면에 천분을가진사람들이 만히 나올것이요 그럼으로 조선영화는 날로향상발전할것이다 우리들은 조선영화계의 금후 동향을 주목하는동시에 성원하는데도 힘을 앗기지 안헛스면 한다 그리고 재래에 영화인에대한 랭정한태도를버리고 이들문화인들을 사회적으로우우(優遇)를하고 따라서 영화인자체도 한개의 가튼사회인으로서 이사회의분위긔에싸혀 영화의제재를이사회에서 구하는동시에자신들의수양문제 자긔들의친목 또는제작상도덕문제등여러가지를 늘ㅣ생각하야 이사회에서선뎨바든 인물들이되기를바라고 조선의문화의향상을늘ㅣ생각해주기바란다 끄트로 저급한 흥행중심의 영화는 철저히배격하야 조선영화를진취으로 향상식히기를·바라는동시에 일반관은 야비한흥행업자의 엉뚱한선전에、속지말기를바란다

(A生)

滿員館

◇……조선의흥행계는 빈약하기야하지만 세계적작품(영화)도언제와다가 언제갓는지모르게 조선에와서는 죽어다가가는 영화가만라 오래되이야기나고ㅎ는일을가튼 조흔外영화가 십전짜리사구료판에 드려가모욕을보고갓고(그럿타고 일반대중의리익을야하야싼값이안이엿슬것이다) 이외에도근자에 몃몃영화도 배급소와 상설관편의 사소한리해관계로 갑업시 와다간것이잇섯는듯하다

◇……그리고 조선영화는 아다실히 제작하기에힘들고 그런니 영화인들의 고초를생각하면서도 다른영화상영하는 때보담도호되인대우로대하야 결국거산이되게하는때도업지안흔데 이것도 아프로 상설관주의리해와 편대한태도를가지기를바라는바이다

朝鮮映畵界를論함
咸大勳

無聲映畵로부터『토ㅣ키』로 質的으로發展한지벌서 已久한世界映畵界에서 거의 隔離나된듯이 아즉까지 無聲版의 領域을 버서나지못한 朝鮮映畵界는

最近 그無聲版이나마 數個의 필림이 生産되여 자못活氣를 못하고 잇는듯하다。

靑鳥映畵社의『바다여! 말하라!』中央映畵社의『撒水車』京城撮影所의『大盜傳』等等 비록質的으로 量的으로 그리훌륭하지는못하나마 映畵界를 繁盛케하엿다。이는 最近四五年間 沈默속에서 지내이든 時代에比較한다면 이도 또한 盛事가안일수업스나 毎日毎日常設館에서 上映하는 外國物에比하면 그야말로 九牛一毛의感이 不無하다。그러면 어찌하야 朝鮮映畵는 質的으로 아즉까지 無聲版에서 한거름을 더 나아가지못하고 量的으로 年十個以內를 藥하고잇슬가?。이에는

映畵 人의 말을듯지 안허도 그것은 우리가 넉넉히 推測할수잇는것이니 첫재 資本難이 그主要한原因이 될것이다。

朝鮮의 資本家들은 資本主義的企業形態도 計畫을 갓지못하고 또 文化的事業에도 盲目이다。

映畵事業은 아모리 觀客이적은 朝鮮이라고하드라도 그것이 收支關係로보아 決코 損害될念慮가업다。從來로 朝鮮의映畵가 生産이 되여가지고 實質的으로 損害되것은 업다。그러나 그것이 繼續的으로 나아오지못한것은 겨우 한個나 두개의映畵를만들 資本을갓고 그映畵를 製作함으로 그것이 商品化하야 다시 資本으로 回收되기前 다른 映畵를 만들 資本을 갓지 안헛슴으로 繼續的으로 製作하지못하는 때문에 그다른 映畵를

製作 하려고 얼마식回收되는 金錢은 모아두지는못하고 이럭저럭 서버리게 되므로 그만 한個의 映畵밧게 製作못한채 그映畵社는 破産을 當코 필림은 典當局으로 드러가는것이 거의 大部分인때문이다。

그러타고 小資本으로나마 合同을하여 一定한固定資本을積立한다면 映畵會社로서의 業績은 내일수도 업는것은안이나 只今까지의 例로본다면 거의 그런 合同의 氣運은 조금도 보히지안는다。좀더 小資本으로나마合同合資할이 어떨가한다。

×

그다음으로는 出資主의 映畵製作의 沒理解다 自己가出資했다고 自身이 不適한主役에 出演하려하거나 또 그

資本 이란것을 밋기로女俳優를 弄絡하는卑劣한 手段으로 因하여 資本을 부질업시 써버리는例다 이는 너무나 言語道斷의 不道德的行爲어니와 좀더 映畵에 出資하는者는 敎養과 道德的 良心이 잇서야 할것이안일가?

×

세재는 撮影技師의 橫暴다 撮影技師는 全部撮影한 필림을 自己가 現像 印畵하느니마치 돈을 만히 쓰려는 慾望에서 새 필림을 浪費하거나 或은 報酬를 만히 주지안흐면 現像한 필림을 내여노치안는等 非良心的인 行動을하야 小資本이나마드려만든 映畵의 製作愛를 너무나 巨額을드리게하여 破産의悲運이 直面케한다 이가튼

技師 의 不道德的行爲는 非一非再 이거니와 이것을 匡正하려면 적어도 技師의 道德的 修練업시는 救할길이 업고 또 組織的인 會社가되기前에는 또한 이것을 어떠케할길이 업는것이다 그러나 이多難한 朝鮮藝術運動에 적어도 獻身的情熱을 가진다면 이는 不遠消滅될것이다

그런데 이런때는 電氣俳優에도 만흔것이니 이에 對해서는 적어도 自己가 한개의 藝術運動의一翼的任務를 遂行한다는自負心을 가진다면 이런不道德的行爲는 업시될것이라고 본다

×

原作脚色에 잇서서도 좀더傑作이 나와야하겟지만 아즉것이려라할 우리의 가슴에 印처줄 그무엇이 적음이 크케

遺憾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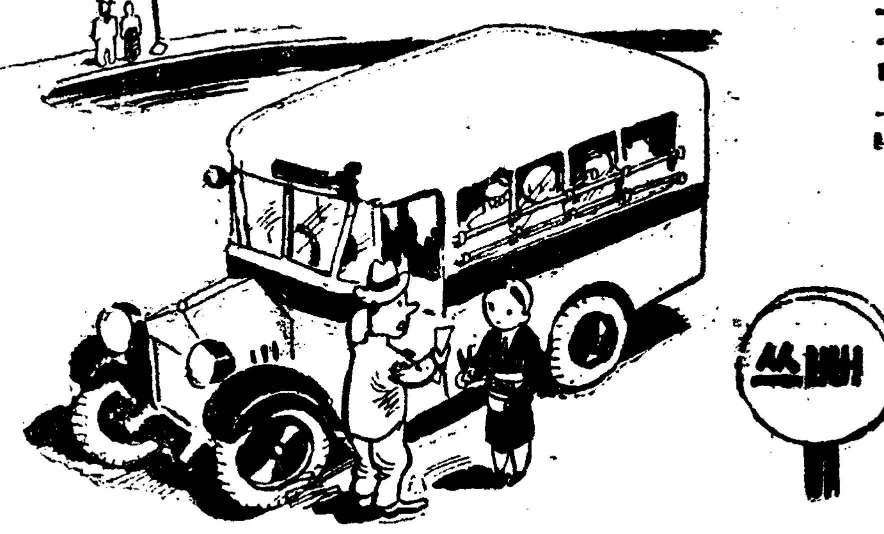
×

어떠튼 只今의 朝鮮의 映畵界는 十年前이나 오늘이나 거이睡眠狀態로 계속되여 아ㅡ모런 質的量的發展이 업슴은 누구나 否認못할 事實이다 勿論하나의 藝術運動이 그러케急進的으로 發展할수는 업슬 것이지만 오늘날 朝鮮의 映畵運動이 너무도 遲遲不振함을 痛嘆하야 이제 一言을 寄하야 朝鮮映畵運動에 致히 檄하는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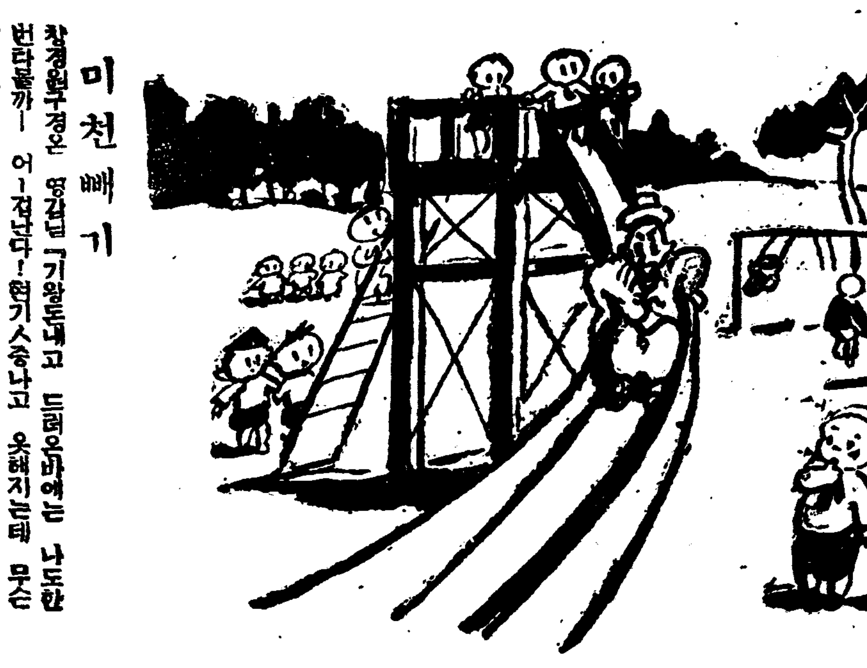
『外國名畵』 寫眞(右上)파社의 조지·랩트主演의『[illegible]』 獨逸(上左)의『女子의마음』(中右)佛畵의『外人部隊』(中左)佛畵의『椿姬』 獨畵(右下)의『봄의파레이드』(左下)、파社의『西班牙狂想曲』의場面들

漫畵 大風世界
熊超

車票에도「더음」



미천빼기



政府의步行運動奬勵策

五月『山水』冒險心
駿鄕生

『山으로나아오라』
『물까로나아오라』

노픈山에 눈이채녹기도前에、노구조리소리가나자마자 개나리가 겨오봉오리를맷기시작할때부터 여기저기서는 벌서이러케떠들고덤비엇다。

이미꼿철이지나고 新綠이 퍼지는이제와서는 確實히 時代에뒤떨어저서 묵어빠진소리다。그러나꼿철은 시골샌님의 보따리가 서울로몰려어드는 時期임엔 決코郡會에사는사람이 시골로나믄에사는사람이 등의시구석으로나려가는時期는아니다。殺使好意로 解釋하더라도 그들이나아오라고 소리치는 그山과그들은 結局殘山剩水에 더지나지못할것이다。하로의 消風으로야 그도또한해롭지안하리라만은 남의消風까지를 구래어야른꽁할것은 업는일이다。지금내가 山水로 나아오라고 부르지즈면서도 행여나다른사람의 실업은 수작과 混同될까毒怯하고잇다 나의말하는山水는

天險의山水 前人未踏의山水,적어도冒險을要하는山水다。即幾劣하고卑怯한무리들로서는처다만보아도눈이어지럽고 굽어만보아도다리가떨리는 山水다。푸른그늘을 차겻게맨드는 五月의볏은 차로 두려워가지안는가? 그러한山水를 차자서 한번冒險을決心하는것도 그아니男兒다운行動이랴?

×

孔子의말숨을드르면 仁者樂山 智者樂水라고하엿다。고요한山을 의맛고 흐르는물은 習와어울린다불수잇슬것이라 비롯素朴하나마 재미잇는對比다。그러나 이 樂山 樂水는 오즉 바라보는山水요 노코보는山水요 좀더 나가야 겨우 緩步의 山水에지나지못한다。죽을때까지도 緣冠을 맺하는

君子道로보아서는 峨冠博帶를解脫을하야서까지 山水와親할수도업거니와 身體髮膚를조금도 毁傷치못한는孝子道로보아서도 險한봉우리와놀랜물결사이로 大膽한出入을 許치안는다。孔子가泰山에 오를때 어떠한맵시와 어떠한모냥새로 나섯슬꼬궁금하야 나는 서투른考證을試驗해보앗건만 不幸히나로서는 아모런記錄도發見치못하고말앗다。半臥起居의모든 方面으로 그公私生活을그리어노흔 鄕黨篇까지도 그當時光景에 對하야는 一言半句를言及치아햇스니 나의考證이徒勞에끄치는것도 한갓固陋한때문은아닐것갓다

그러나孔子의後裔인 지금의中國사람들이 어깨로언메는籠다란 교군을타고山에오르는데 그것이孔子때부터의遺風이아닐는지도모르다 果然孔子自身이 땀을뻘뻘흘리고 올라갓든들 天下가좀더크게보이지나안햇슬까 疑心나는點도 업지안다。

孔孟의道를嚴히지혀온 우리들의祖上도 山에기어오르고 물속을허쳐들어가는재미를 理解치못하엿다。그들의갈지人字거름으로서는

京城仁川間에도足히一年여두달이걸릴수하거나 그다라로서登山이나 회엽은 千不當萬不當의일이다。萬一중놈들의山남여만 업섯든들 江原監司로 加瓜까지하면서도 金剛山 一萬二千峰을 悠然히보고만 돌아왓슬것이 아닌가? 緩氣스러운 官員한분이 民廣에싹대이로 중놈들을시키어 교자시상을차려다가자신일도잇다고 하지만은 그러고서야金剛山에오른참趣味를 알앗다고 할수잇는가? 그러나危邦不入亂邦不居는 孔子로부터 배휘온兩班의政治哲學인同時 處世哲學이다。

古木나무까지도 危邦이라고 올라가기를禁하고 우물까도 亂邦이라고 서기를禁하는 그父兄미러서 크고자라나서 險巇恐懼를征服한다는것이야 그런생각부터가질豫氣가업슬것이다。곳곳이山이언만은 朝鮮의山은 山蔘이나石茸캐는사람들의 山이요 三面이바다언만 朝鮮의바다는 海女나漁夫의바다다。朝鮮의歷史가 몃千年인지는 몰라도 그만큼朝鮮의山水는쓸쓸해잇는山水다。

×

朝鮮의博物君子여! 좀더은둔장만홀뒤지지말고 山材料를차즈러나오지안하려는가? 朝鮮의詩人이여! 편안히바라보든景致만을 읍지말고 땀을흘려걸어보지안하려는가? 朝鮮의老人이여! 그대들은竹杖芒鞋단瓢子를노래로만 부르지말고 實地로靑少年을해보지안하려는가? 아니朝鮮의靑年들이여! 그대들의山으로나오고 그대들의물로나아와 그것으로나마라도그대들의氣槪를보이고 그대들의膽力을보이어주지 안하려는가? 우리는우리의祖上을 어대까지稱頌하야조호나 갈지人字의 거름과산남여까지를 讀謝하지는 못한다 그러지안해도 우리의血管人속에흐여나 殘劣하고 卑怯한 遺傳이흐르지안할까 怯하거니 터구나 조치못한習慣까지를 相續한다서야 말이아니라。勿論지금 우리에게는 營養本位로 먹을중놈모르는나는등 또왜動物虐待를防止할쥴모르는나는등 別別의 責望이만타 文明人이 되기爲하야 우리도그런것을 배호는것이 조흘줄은 모르지안하되 不幸히 우리는 조팝을먹는人間들이다。그러나山水로나오라는부르지즘을 營養本位의食事나動物虐待防止會의組織과가티 評價하야서는안된다。우리의氣槪나膽力을기르는 點으로라도 그런種類와는 決코 比較할것이아니다。

五月의斷想
黎泉

로ㅣ마의 어느詩人은 當時의 로ㅣ마市街를구어보면서 咏嘆해 말하기를 都市는 맛치 바다人물과갓흔것이다。그만흔 물결속에 잇을적실들은 한방울도업드시都市의 수만흔집과 人間가운데서 하나도 제秘密을말해주는 것은업다고하엿다。

이것은 제법 現代的觀念이다 그러나 우리가 한都市를俯瞰할때도 이러한 秘密이잠겨잇는不可思議의 殿堂과가티 보히는것이지마는 그보다도 自然이라는 것은 더말할수업는 玄秘의城壁에 싸돌여잇는것갓다。보라 過去의 수만혼詩人이 金城鐵壁과 갓혼自然의 秘肝를얼마나두다렷스랴마는오히려 自然의秘密은아직도 處女의乳房과가티 누구의 손에도만저지지안코 누구의눈에도띄이지안흔채로 그대로남어잇는것이다。그럼으로 엇던詩人은 自然에對해서 肉薄도하야겟지마는果然 그勝利의 凱歌는 어듸로갓는가? 그 佛蘭西의 浪漫派詩人 알프레ㅣ드·드·뷔니가 『牧人의집』이라는 詩의一節에서 自然으로로하여금 『사람들은 나를 어머니라고부르지마는 나는 墓穴이다』라고하게한것이 얼마나 自然의偉大와 神秘感을맛보는것이러오마는 世界詩壇의歌頌이가는 벗들에는까지도 自然에對해서는 一種의征服者的인 敗北의悲哀를맛보지안핫것이냐。그가散文詩「美의探求者의告白」에한 속에서 「美의探求라는것은 너와 자우든 藝術家가 敗北하기前에부르짓는 悲鳴이다」한것으로 보아도알것이다。

그럼으로 우리가 흔히 어떠한 自然의風景가운데서 맛처럼 街路가다 어느한구석을붙주어내엿다고하드래도 自然에게잇서서는 조곰도損害이나 損失이잇는것이아니다。그러나人間의唯一한 자랑인 藝術이라는것이 오히려 自然에對해서는 아주 降服을하지안코 代代로이어가면서 祖先의다못한事業이나 成就하려는듯이 自然에對해 抗戰하고 挑戰하고 探求하는것은 무엇일가?

봄이니 여름이니 가을이니하는것도 실상은 人間이自然의秘密을훔쳐서 내기위해서 토막토막이나우어놋코 봄것이다。그래서이것은 어느程度까지 成功한것이다。실상、우리에게만약、四時의分明이라는 知識이 끼치어잇지안핫든들 우리는 이廣漠한自然의廢細한變形을 어느갈피에서 붓잡어보앗슬것인가?

『騎兒者』 콕토가 그『阿片』이라는手記가운데서 自己의젊엇슬때의 野心을告白해말하기를「나는어느때는 무엇이든지 다表現해보려고하엿다。街路에빗나는漲靑그리고 蒼空을나는제비들」이라고하엿다。그러나 그맛헤다려서自己의 이러한表現慾이 成功을하엿는지 失敗를하엿는지는아모말이업다。우리가 콕토의손으로그려진 自畵像의 뎃상을보다면그尖銳한神經은 아마 巴里市街에날너다니는 바레이한마리가그낫헤 부딧처도 갓지러워못견딜것갓치 보이느니만치 五月의街頭에 빗나는漲靑과 그리고 꼿업는 蒼空을훨친는 제비떼를 본 콕토가 엇지 그냥 난觸感에서 물타는듯한 表現慾을느기지 안헛스랴?

그러나 한가지 이상한것은四時中에도 가을이 가장 뮤즈의 恩寵바든時節인것만은 事實이다 내가아는 佛蘭西의歷代詩人들中에서도「가을의노래」라는 똑가튼 題目을 한두篇식만가진 詩人은 거의업슬것이다。가령 例를들면 上田敏氏翻譯으로서 一世에膾炙되든 그有名한베르네ㅣ느의『가을의노래』를비롯해서、뽀들레ㅣ르、라말틔ㅣ느、람보等의 가을을 읊흔詩중에 어느하나이든지 傑作아닌것이업는것이다。그러나 내가寡聞한탓인지는 몰나도 가을을읇흔詩가 이러틋珠玉과갓흔것이만흔데比해서 봄봄을읊흔詩가 적으며 그중에도 五月의노래라고 할만한것이 특히생각나지안는 것은 이상한일이다。만약이것이 事實이라면 그理由를 착실이 研究해보는것도 興味잇슬일이겟지마는 한가지 가장쉽게 생각되는것은 시절이가지는深刻性이라는것과 가을이제일만히 가진때문이 안일는지?

勿論 五月의한철도 제대로의 風光이잇는지라 石竹빨긴의 稜角우에 가로질리는볏살이라든지 새로깐병아리새기가튼 街路樹입사귀의新綠이 우리에게암지못하는 明朗한뜻김을주는것은 事實이다。그러나 이한시절이란 원재로빨르느니만치 한편의詩도 무르녹을겨를이업는것이 아닐가?

이것은 자못 내獨斷에갓가올는지모르나 엇지든 五月의한시절이란 우리의 詩想을이르켜 天코도 채그것이 完成되기도전에 훌너가버리는 가장빠른 流光의 逝旅인것갓기도하다。

新刊紹介

◀農民時報 第三十九號 京城府慶雲洞八八農民週報社發行 振替京城一四三六一番 定價四錢

◀高麗時報 第二十號 開城府北本町三九七 高麗時報社發行 定價五錢